

여서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9월
2024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석남동지점 거래고객
(쥬로리에 이진상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군자역지점 거래고객
(주)SWII노베이션 채종대 대표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기업은행의 가치성장 프로젝트

IBK UP TOGETHER

IBK기업은행은
자립준비청년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꾸려 나갈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IBK기업은행의
CROW UP

작은 어려움도
후로는 큰 청년들에게는
큰 강건함이 되니까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IBK 희망나래 장학금]

취업을 위한
[멘토링에서]

완벽한 자립을 위한
[금융교육까지]

<p>04</p> 	<p>04 미담 디톡스 쌤쌤담 '여행지에서 만난 귀인' 외</p>
<p>72</p> 	<p>12 이달의 편지 '존경하는 복화 씨' 외</p> <p>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주)로리에 이진상 대표</p>
<p>76</p> 	<p>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SWII노베이션 채종대 대표</p> <p>80 코너 속 편지 '저는 그냥 동생인 거죠?' 외</p> <p>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이별은 늘 어려워</p> <p>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헬스장</p>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4년 9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용승우, 전현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광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설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미담 디톡스 쓰담쓰담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러지는 미담이 있으면
 여성시대로 보내주십시오.
 마음속 독소를 빼내고 쓰담쓰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귀인

김미정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는 대구에 사는 33살 김미정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 그중 한 친구가 결혼해서 집들이를 하러 갔다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학창 시절 추억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잊고 있었던 소중한 추억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때는 2011년 막 20살이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무리는 일주일 동안 기차여행을 떠났는데요. 서울, 영월, 여수, 목포, 제주도를 모두 누비는 일정이었어요. 스무 살 학생 때이니 돈을 아껴야 해서 비행기는 엄두도 내지 못했기에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갔었지요.

저희는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해 자전거를 빌려 탔습니다. 당시 아무도 운전면허증이 없었고 제주도 여행도 처음이라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제주도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여정이지만 스무 살의 패기 때문인지 길게 생각 안 하고 일단 '고!'였죠. 그렇게 몇 시간을 자전거를 탔을까요. 아직도 그때 달리고 있던 도로 이름이 생각납니다. '평화로'였어요. 저희는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운 여름이라 힘들고 지치는데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어서 점점 한계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는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습니다. 차들은 한 대도 멈추지 않고 비는 오기 시작하고 점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기가 자전거 3대에 사람이 3명이니 누구도 선뜻 도움을 주기 힘들었겠지요. 망연자실하고 있던 그때 트럭 한 대가 저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너무 오래 전이라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한 아저씨가 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른 타세요!”

그리곤 손수 비를 다 맞으며 자전거를 트럭에 실어주셨어요.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저희가 트럭에 오르자마자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저희는 트럭이 달리는 내내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했던 거 같아요.

받아든 명함에 그분이 어느 회사의 본부장이라는 정보가 적혀있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저희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다며 이런저런 인생 조언과 맛집 추천 그리고 가볼 만한 제주도 여행지까지 추천해 주며 숙소 앞까지 안전하게 태워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스무 살 아이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셨던 걸까요? 그분은 다음날에 다시 와서 근처 관광지에 데려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다음날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드렸고 그분의 인솔하에 오설록 녹차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스마트탭이 흔하지는 않았는데 그분은 스마트탭을 들고 저희 단체사진도 찍어주셨어요. 푸른 녹차밭을 배경으로 찍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진을 못 찾겠네요. 그다음에는 식당으로 향해 맛있는 뒛고기도 먹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그분이 사주신 뒛고기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꼭 다시 찾고 싶은 귀인인데 성함도 다니시던 회사도 기억이 안 나

니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 아저씨께서도 분명 저희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2011년 여름, 제주도 애월 쪽 ‘평화로’라는 도로에서 만난 트럭 아저씨! 저희 기억하시나요? 무모하게 자전거를 타던 스무 살 아이들은 지금은 아기 엄마가 되었고 신혼을 즐기고 있고 또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저희가 만난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귀인이셨어요. 언젠가 연락이 닿는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꼭 뒷고기 대접해 드리고 싶네요. 정말 감사했고 보고 싶습니다.

친절과 감동 사이

신인순 | 경기도 부천시

아침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 시간에 맞춰 노인복지관으로 향했다.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등 뒤에서 한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근처 동양빌딩이 어딘가요?”

“저도 잘 모르는데 급하면 택시를 타세요.”

성의 없이 대답하고 길을 건너려다 문득 ‘내가 너무했나?’ 싶은 마음이 들어 다시 되돌아선다.

“같이 건너요. 콜택시라도 불러드릴게요.”

중년이 훌쩍 지난 듯 보이는 남자는 감사하다며 내 뒤를 따라왔다. 그는 묻지도 않은 자신의 사정을 바쁘게 늘어놓았다. 지금 무슨 자격

중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시험장을 찾지 못해 한 시간을 헤매고 있으며 택시를 타려 해도 잡히지 않아서 곤혹이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시험시간이 임박했다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모습이 펍 안타까웠다. 그제야 그의 허름한 작업복 차림과 언뜻 보아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아마도 시험에 필요한 공구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눈썰미가 없다. 한두 번 본 사람 얼굴은 잘 기억하지 못해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도우미를 자청한 것은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내 오지랖이 넓어서일 수도 있겠다.

일단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히 건널목을 건넜다. 우리는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찾아 시험장을 검색해 보았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이리저리 돌려보아도 엉뚱한 지명만 나오고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마음은 급해져 나까지 식은땀이 줄줄 났다. 미덥잖게 쳐다보던 그가 이제 그만하자고 한다.

“아무래도 이번 시험은 포기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중요한 시험 아닌가! 적지 않은 나이에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알기에 더욱 도와주고 싶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본다. 저 청년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으니 내 말이 들리지 않을 것 같아 건너뛰고, 저 학생도 바빠 걷는 걸 보니 지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눈을 돌린다. 누구 한 명 한가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 자전거를 끌고 신호를 기다리는 젊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저기요. 이분 좀 도와주세요. 시험 시간이 다 되어 간다네요.”

다행히 남자는 걸음을 멈추었다. 내 손에 있는 휴대폰을 넘겨받아 이리저리 검색해 보더니 목적지를 찾았나 보다. 내가 일행인 줄 알고

같이 갈 거냐고 묻는다.

“아니요. 이분만 갈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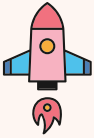
청년은 그 중년의 남성에게 흔쾌히 뒤에 타라고 했다.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온다. 순간 출근길 사람들 사이로 묘기를 부리듯 자전거 한 대가 바람을 가르며 달려간다. 애인의 허리를 꼭 껴안은 여인의 모습이 아닌 다소 어색한 두 남자의 뒷모습이 멀어져갔다. 저 자전거가 빨리 달려 시험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하기를 그래서 그가 무사히 합격증을 받을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예전에는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예의라고 배웠다. 통학버스에 앉은 학생 얼굴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앉아 있는 사람의 무릎 위로 책가방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있으면 서로 자리를 양보하는 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고 그 고마움에 가방이나 짐을 받아주는 모습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요즘은 분명히 세상이 달라졌다. 바쁘다는 핑계로 웬만하면 사람들은 이제 남 일이나 시선에 관심이 없다. 아예 눈을 감은 채 주변을 보려 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노인을 도와주려는 이 없으며 유모차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 해도 비켜주는 사람이 드물다. 오죽하면 임산부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았을까!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우니 생각이 많아졌다. 선한 영향력은 꼭 대단한 사람이 큰일을 해야만 생기는 게 아닌 것 같다. 작은 친절로도 큰 감동을 안겨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청년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는 여러 영웅이 있는 게 아닐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나조차도 편하다는 이유로 가까운 이웃이나 부모, 형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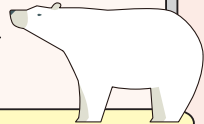
100년 후 우리에게



[4871] 이 아줌마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과학의날에 늘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를 그렸는데, 그 시대에는 정말 하늘을 날아서 학교에 다니나요?

[0365] 하루 세 끼 끼니마다 뭘해 먹어야 하나 매일 그것만 고민했는데, 먼 훗날 하루 한 알로 하루 끼니 몽땅 해결되는 그런 약이 나왔나요? 힘들여 다이어트도 안 해도 되고 끼니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최은주] 북극에 북극곰들이 아직도 살아있나요?



[9908] 100년 뒤 인간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목이 된 우리 인간은 결국 거북이가 돼서 바다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몸에 전자칩을 심어 사이버 인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9981] 100년 후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까요? 반쪽이 아닌 온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남미] 100년 뒤에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봄과 가을은 잠깐이고 여름과 겨울만 존재할 것 같아요. 그 때도 여름과 겨울만 있을지 궁금하네요.



- 12 존경하는 복화 씨
- 15 벌써 두 해
- 18 우리의 새 식구
- 22 나는 시각장애인 아빠다
- 25 이리다 동네 이장 될까 걱정
- 29 아버지 일어나세요
- 33 복날에 오신 손님
- 37 유명 무명이 뭐가 중요한가
- 41 미국에서 온 아이들
- 45 엄마를 찾아서
- 49 외상 택시비 받으러 갔다가
- 53 모바일 세상
- 56 이야기가 있는 채소가게
- 60 강낭콩은 그렇게 익어갔다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존경하는 복화 씨

애청자

저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다 코로나19 이후 실직하고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교 시간이 되면 몰려오기 때문에 공부방은 오전 시간까지는 비교적 한가롭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미리 밥을 먹어두고 출근하는 편이에요.

어느 날 집 앞에 맛집이라고 소문난 순두부집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수업 중간 여유 있는 시간을 틈타 갔더니 이번에는 브레이크 타임에 걸려 또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업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니 또 그다음 날에는 아예 수업을 일찍 마치고 늦은 오후에 식당으로 향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재료 소진이라더군요.

결국 소문난 순두부는 맛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당근마켓을 뒤적이는데 바로 그 순두부집에서 알바생을 구하는 공고를 올린 게 아니겠어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일주일에 딱 하루만 나가는 알바 자리에 지원했고 곧 연락을 받아 드디어 그 순두부집에 직원으로 입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순두부집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늘 줄 서는 손님들로 북적여서 저는 가끔 근무 날이 아닐 때도 급한 연락을 받고 나가 오전 서빙을 도울 때가 있었어요.

사장님이 두부는 물론이고 여덟 가지 반찬을 직접 만드시니 그 정성과 맛이 끝내주었지요. 이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다는 걸 이해되었습니다.

숨씨 좋고 화통한 사모님은 직원 식사까지 끼니마다 챙겨주셨고 간식이며 콩물이며 나눔과 친절이 몸에 밴 분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거의 주방에서 나올 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식당 홀은 대부분 복화 씨라는 중국분이 맡고 계셨습니다. 복화 씨는 한국말과 글에 어려움이 전혀 없어서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홀에서 서빙을 돕는 저는 복화 씨의 일을 돕는 셈이지요. 복화 씨와 저는 서빙하고 계산하고 상을 치우고 이따금 식재료를 다듬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복화 씨는 30대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벌러 오셨어요. 어린 아들 하나를 어머니께 위탁하고 왔습니다. 10년 넘게 번 돈은 모두 아들을 위해 매달 중국으로 보낸다는데 사실 저는 복화 씨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한 인상이 썩 좋지 않았어요. 전화 사기니 짝퉁 공장이니 그런 이미지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복화 씨는 제가 살면서 만난 가장 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

니다. 밥 한번 먹어보겠다고 시작한 알바가 친절하신 사모님과 선한 복화 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1년째 이어지고 있으니 말 다했지요.

휴가 때 드디어 복화 씨는 아들을 보러 중국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어릴 적 본 아들 준혁이는 어느덧 사춘기 중학생이 되었다는데 모든 보험의 수혜자를 아들로 해놓은 복화 씨는 아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을 글썽입니다.

요즘 복화 씨는 쉬는 주말마다 준혁이에게 줄 물건을 사러 쇼핑을 다니는데 백만 원가량의 돈을 쓰고도 행복해합니다.

그동안 비행기 값이 아까워 보고 싶은 마음을 꼭 눌러왔던 복화 씨에게 저는 뭐라도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복화 씨는 정작 가져갈 짐이 너무 많아서 김 몇 장도 못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저는 복화 씨에게 부탁했어요. 그저 무사히 다녀오고 너무 많이 울지는 말라고요. 복화 씨는 자신이 없다며 빙긋이 웃습니다.

복화 씨에게 들려 보낼 선물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쉬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복화 씨의 아들에게도 꼭 말을 전하고 싶어요. 먼 타국에서 엄마는 오직 준혁이만 생각하며 십여 년 살고 있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선하고 훌륭한 분이며 성실한 사람인지도요. 가까이서 매일 보는 엄마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복화 씨는 너무나 존경할 만한 분이란 걸 꼭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Letter 02

벌써 두 해

정경옥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저는 3년 전에 31년 6개월 공직생활에서 퇴직하고 지금은 아동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며 친구들과 파크골프로 즐거운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7월 18일은 남편이 아들의 간 이식을 받은 지 2년 된 날입니다. 남편은 해양경찰로 30년을 근무하고, 어느 날 저녁밥을 먹다가 갑자기 “나 건강이 안 좋아져 8월 31일자로 명퇴한다” 하더니 정말 명퇴를 해버렸습니다. 퇴직까지 4년 넘게 남았고 병가를 해서 치료해도 되는데 딸은 취업 준비생이고 아들은 군복무 중인데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하수 없이 레몬청 60병을 주문하고 떡을 두 되 해서 남편 근무지를 찾아가 그간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소 건강 검진에서 간이 안 좋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제 말과 의사의 당부를 무시했습니다. 남편의 퇴직 다

음날 하루 휴가를 받은 저는 병원으로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 후 의사선생님은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더군요. 간경화로 식도정맥 출혈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변을 시커멓게 보고 가끔씩 입으로 피가 넘어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검사하는데 의자에 앉아 있던 남편이 갑자기 평평 울며 “내가 너무 건강을 소홀이 했다”고 후회하더군요. 저는 울고 있는 남편을 안아주며 치료하면 된다고 다독였습니다.

그 후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저는 병원에서 출퇴근했고, 그 사이 서울에서 공부하던 딸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인천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군에 있는 아들에게는 차마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건강 상태를 모르는 아들이 제대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이제 약물로는 치료가 어렵다며 간이식만이 살 길이라 하더군요. 간이식센터에서 상담했더니 기증자 순번은 기약이 없고 제 간은 이식해도 결과가 안 좋을 확률이 높다면서 자녀들 얘기를 하더군요.

아들에게 아빠의 사정을 얘기하며 눈물을 흘리니 아들도 울면서 “엄마, 당연히 제가 아빠에게 이식해 드려야지요”라고 말해주어서 저는 그만 아들을 안고 평평 울어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스물둘인 아들, 갓 제대해서 복학하고 젊음을 즐길 아들에게 몸쓸 짓을 시키는 몸 관리 못한 남편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곧 아들과 남편의 수술일이 잡히고 남편은 수술 전 검사를 위해 입원하고 저와 아들은 코로나19 검사하고 한동안 비워야하는 집을 대충 정리하고 큰 트렁크에 입원 기간 동안 필요한 물건을 채워 넣고 아들과 함께 수술 전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수술 전날 아들과 남편 병실에 들렀는데 아들은 아빠 손을 잡고 수

술 잘 받고 같이 퇴원하자더군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병실에 입원했고 그들을 따라 저도 같이 금식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니다. 아니 배가 고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수술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7시쯤 아들이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가면서 저를 향해 걱정 말라고 손가락으로 V를 날리는데 울음이 터졌습니다. 두 시간 뒤 남편도 수술실로 들어가고 딸과 남동생 부부가 와서 수술실 앞을 같이 지켜주었습니다. 시간은 왜 그리 더딘지... 드디어 아들 수술이 끝나고 비몽사몽인 아들이 병실로 이동하는데 너무도 아파해서 제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오후 7시 남편도 수술이 끝나 중환자실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아들 간병을 했는데 아들은 젊어서 회복이 빨랐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과는 전화 통화로만 안부를 물을 뿐 갈 수는 없었습니다. 4일 후 남편도 일반 병실로 왔고 그때부터는 휴가 받은 딸이 아빠를 저는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아들과 아빠가 검사하러 내려간 영상실 앞에서 수술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미안해하면서 고맙다고 말하고 아들은 아빠에게 건강관리 잘하셔서 즐거운 인생사시라고 하며 둘은 손잡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저와 딸은 두 사람을 지켜보는 내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건강해져서 아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남편은 파크골프를 치며 건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글을 쓸 수 있지만 그런 아픈 추억은 다시는 갖고 싶지 않아요. 아빠에게 흔쾌히 간의 70%를 떼어준 우리 아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Letter 03

우리의 새 식구

이수정 | 경남 함양군 마천면

우리는 매일 하우스로 출근한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여러 명의 일꾼과 일을 시작한다. 날이 갈수록 일해 주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인력이 아주 부족한 게 농촌의 현실이다.

지난봄에는 군청 홈페이지에 '계절 근로자' 안내문이 보여서 한 번 신청해 봤는데 4월 일손이 한창 필요하던 어느 분주한 아침 우리 하우스에 해맑은 미소를 가진 외국인 부부가 찾아왔다. 아주 옛된 얼굴의 옌과 해맑은 청년의 모습을 한 푸. 그렇게 우린 새 가족이 되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보건소에서 신체검사와 마약 검사를 받고 여행자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도 챙겨야 했다. 생각보다 서류도 복잡하고 할 것이 많았지만 우린 낯선 타국에 찾아온 옌 푸 부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

이들이 지낼 숙소는 우리 할머니가 지내시던 집을 수리해서 마련했

고 밥솥과 냄비, 식기류도 장만했다. 우리 신혼 때가 생각나서 이왕이면 예쁜 것으로 골랐고 두 사람이 고향 생각날 때마다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게 베트남 조미료와 식자재도 구비해두었다. 서툴지만 번역기를 돌려서 숙소 지낼 때 주의 사항과 일할 때 필요한 농사법을 사진과 함께 글로 만들어두었다.

짧은 5개월이지만 이들이 정말 잘 지내다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다행히 엔 부부도 우리가 마련한 한국에서의 집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좋다고 엄지척을 계속 날려주었다. 정말 뿌듯하고 기뻐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투르지만 휴대폰 번역기로 대화를 주고받고 밤에는 SNS 메신저로 친구를 댄어 좀 더 가까워졌다. 24살 엔은 나를 언니라 부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니, 저는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대만으로 가서 계속 돈을 벌었어요. 집이 가난해서 제가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나는 그런 엔에게 ‘너무 대견하다, 고생 많았다. 한국에서 즐겁게 지내면서 돈 많이 벌자!’ 응원해 주었다.

또 나는 엔에게 물었다. 돈을 벌어서 베트남에 돌아가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냐고. 엔은 말했다.

“일단 집을 갖고 싶어요. 부모님께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어요.”

나도 어릴 때 빨리 돈 벌어서 울 아버지 예쁜 집 지어드려야지 생각했었는데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엔의 말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서 엔을 더욱 더 응원하게 됐다.

솔직히 엔과 푸를 만나기 전 걱정이 좀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일했던 경험자들로부터 어떤 사람은 집안 살림을 다 훔쳐 갔다고, 또

어떤 집은 현금을 다 들고 도망갔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온 옌과 푸는 달랐다. 이들은 정말 일을 잘한다. 일머리도 좋고 눈치도 빠르다. 요즘은 일을 가르친 나보다도 일을 더 잘하는 것 같다.

어느 날은 옌이 아는 언니한테 부탁해서 받았으며 버블티 재료를 가득 받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다. 직접 복숭아를 절여서 아이스티도 만들어줬는데 솜씨가 엄청 대단했다.

“언니, 우린 결혼하고 버블티 파는 가게를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장사가 안되었고 하필 그때 푸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매우 힘든 시기였어요.”

두 사람의 솜씨를 계속 더 써야 하는데 안타까웠다. 돈 많이 벌어서 꼭 베트남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엔 푸의 생일이었다. 근로계약서에서 났던 생일을 기억했다가 오후 새참 시간에 짬~ 하고 케이크를 꺼내니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눈시울이 빨개졌다. 베트남 젊은이들이 갖고 싶어 한다는 브랜드의 모자도 사서 선물했더니 SNS에 자랑하듯 올리며 기뻐했다. 그리고 그날 밤 메시지가 왔다.

<언니, 저는 언니의 가족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고마워요. 생각지도 못했던 생일파티였어요. 푸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타국에서 생일마저 못 챙기고 일만 하면 얼마나 쓸쓸할까 생각하니 돌아오는 9월 옌의 생일도 꼭 챙겨줘야지 싶었다.

우린 이렇게 서로에게 매일 정이 들어가는 중이다. 매일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춤도 추고 장난도 잘 치고 옌과 푸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외국인은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가 엄청 비싸다고 발을 빼어서 아프다면 병원에 안 간다고 우겼다. 내가 산재보험에 들었으니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둘 다 황소고집이었다. 하는 수 없이 발목 보호대와 파스, 진통제 등을 사다 주며 통증이 나아지지 않으면 꼭 병원에 가자고 거듭 말하니 옌이 말했다.

“언니, 우리는 병원비 걱정보다 가족의 일이 바쁘는데 그 시간을 병원에서 소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절 근로를 연장 계약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파서 일을 못 하면 사장님이 안 해줄까 걱정이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 5개월 근로기간이 끝나면 고용주는 3개월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그게 혹시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한국 올 때 돈을 빌려서 왔는데 갚을 돈까지 벌여 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걱정 속에서 일했다고 했다.

우린 당연히 이들과 연장 계약을 신청했고 12월까지 함께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이들을 성실 근로자로 신청해서 다시 또 가족으로 맞이할 예정이다. 그리고 남은 기간 가족이라 생각하며 잘 지낼 것이다.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도 잘하고 잘 웃는 예의 바른 신혼부부 옌과 푸. 이들과 헤어질 때 얼마나 울지 벌써 걱정이다. 하지만 우린 또 곧 만날 거니까!

“옌! 그리고 푸! 나는 너희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 고마워~ 우리 집에 찾아와주어서~ 우리의 새 가족이 되어주어서~.”

Letter 04

나는 시각장애인 아빠다

애청자

아빠가 되니 두렵지만 도전해 보는 세상이 많아집니다. 전 20살 때 시신경 위축으로 1급 시각장애인 등급을 받고 26살 때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아내를 만나 1남 1녀를 낳았습니다. 저는 시력이 마치 뿌연 안개가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행이나 일상생활을 하기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전만 해도 저보다 시력이 좋았는데 결혼 후 점점 나빠져서 이제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 우리 둘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건 그리 쉽지 않았습다.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열 살 되던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이가 시무룩하게 앉아 있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친구들은 여름 방학 때 비행기 타고 제주도며 외국으로 놀러 간다는데 우리는 한 번도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서 아내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있었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가기 힘들어. 다음에 우리 아들 더 크면 가자 알았지?” 했더니 아이는 더욱 울상이 되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더군요.

제 눈으로 아내와 열 살 큰애, 구 개월 된 둘째까지 챙기려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아내의 화장실이었어요. 데리고 들어갈 사람도 없고 아기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이라니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계속 아이의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예전 같으면 한숨 한 번 쉬고 그냥 포기했을 텐데 그날은 갑자기 ‘왜 우리 가족이라고 못할 게 뭐야? 난 우리 집 가장이고 아빤데! 눈? 시력? 이런 건 장애가 되지 않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리저리 알아봤습니다.

제주도에 장애인 택시 가이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여행을 통해서 여자 가이드님도 소개받았어요. 아내의 화장실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여자 가이드님을 부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첫 제주도 여름휴가가 시작됐습니다. 식구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내심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고라도 나면 어찌지?’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굳은 마음으로 공항으로 출발. 요즘은 장애인 도움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비행기 탑승과 짐 찾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와! 아빠! 저 구름 좀 봐!”

열 살 아들이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보며 신기하듯 소리쳤습니다. 저도 희미하게 보이는 구름을 보면서 기분이 좋더군요. 아내에게도 구름이 보인다고 설명해 줬죠.

제주도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만난 여자 가이드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친절히 우리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우리 가족을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우리 가족은 레일바이크도 타고 예코랜드, 유리의 성에도 가고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가이드님과도 친해졌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 가이드님이 그러시더군요. 저희 가족이 오기 전에 다른 장애인 부부들이 왔었는데 자매 둘이 근육이 굳어가는 병에 걸려서 둘 다 휠체어를 타고 남편들이 데리고 왔다고요. 그 두 자매뿐 아니라 남동생까지 근육이 굳어가는 병에 걸렸다는데도 가족들이 다 어찌나 밝은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여행 마치고 굴 한 상자를 보내주셨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아픔이 작게 느껴지더군요. 물론 힘들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보니 왠지 힘이 나고 위로가 됐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제주도 흑돼지구이는 먹을 생각도 안 했는데 가이드님께서 친히 구워주신다고 가져고 해서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기 기저귀, 아내 화장실도 도와주셔서 정말 잘 쉬다 왔습니다. 가이드님은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몸과 마음의 힐링을 주셨어요.

여행 끝나는 날 호텔까지 찾아오셔서 여행 동안 아내가 고사리나 물을 참 좋아하던데 집에 돌아가면 먹으라고 고사리 선물도 주셨습니다. 몇 번이고 감사하지만 사양한다고 했는데도 선물로 주고는 얼른 돌아가 버리시더라고요.

처음엔 걱정 반 설렘 반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은 사람의 온정으로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첫 제주도 여행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 한 곳에서 짙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Letter 05

이러다 동네 이장 될까 걱정

정한성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창 밖을 보니 우중충한 날씨 때문인지 주위가 다소 어두워 보입니다. 6시가 지났으니 해가 활짝 웃고 있어야 할 터인데 지루한 장마철이라 해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씨가 그동안 미루었던 작업을 하기에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낚시를 하거나 텃밭을 가꿀 때 입는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모기의 습격에 대비해 긴 팔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문을 나섰습니다. 주차장 옆에 있는 농기구들을 넣어 두는 곳에서 톱과 대형 전정가위 그리고 장갑을 챙겨 작업을 해야 할 곳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축 늘어져 있던 아까시나무의 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뭇가지를 꺾어 아까시나무 사이에 넣어 두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이 아까시 줄기가 차를 운전하는 데 많은 방해가 되고 자칫 교

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 줄기를 꺾어 놓은 모양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제가 사는 주택가의 도로 옆에 늘어져 있던 나무줄기가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날이 갈수록 도로 지면에 가깝게 내려오더니 차를 운전하고 가면 차의 앞 유리에 나뭇잎들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저것을 빨리 제거해야 하는데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지나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나뭇잎들에 신경을 쓰다가 옆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하마터면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골목길이라 서로 서행해서 사고가 안 났지만 그 나뭇가지가 어떤 사고를 불러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녀 나온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그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제거하려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더 급한 일이 생겨 제거 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 누군가의 손에 의해 그 위험한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은 이미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철저하게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선 김에 도로 옆에 있는 나무와 풀들을 제거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이 작업을 했었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서 서서히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나무줄기는 전정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는데 비교적 쉽게 잘려집니다. 잘려진 아까시 줄기에 매달린 녹색의 나뭇잎들이 가볍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두꺼운 줄기는 톱으로 써는데 아까시나무의 줄기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 조금 자르다 꺾으면 쉽

게 꺾여집니다.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손녀 가온이 나온이와 같이 아까시 잎을 뜯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손톱으로 나뭇잎을 하나씩 튕겨 떨어지게 하는 시합을 했던 기억도 떠올라 더더욱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좀 더 녹색의 향연을 펼치고 싶을 것인데 인간이 사용해야 할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하였다는 죄 아닌 죄를 몰어 이렇게 짹짹 잘라버리니 저를 몹시 원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 원망 때문인지 아까시의 가시에 몇 번 찔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시나무 줄기들을 자르고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환삼덩굴을 제거하고 길게 자란 쑥이나 풀들을 뽑거나 자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시간이 길어질수록 습도가 높은 탓에 온몸에 땀방울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땀방울을 식히라고 그러는지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세찬 비는 아니어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땀방울과 빗방울이 합쳐지니 더더욱 옷이 몸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만 끝내고 들어가 시원하게 샤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일이니 마저 끝내기로 하고 전정가위와 톱을 번갈아 가면서 작업하니 도로 끝부분이 말끔히 정비되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 누구나 이곳에 주차하여도 차가 나무나 풀에 스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줄 때 나뭇가지 때문에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풀들이 보입니다. 온통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된 길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어 그 속으로 흙이 들어가 있으면 어김없이 풀들이 자라나 있습니다. 그 풀들의 생명력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 풀들까지 제거하고 나니 8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 2시간 넘게 일하고 서서히 마무리

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 지금 초당산에서 맨발 걷기 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집 근처에 있는 초당산 황톳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안 보이니 이렇게 묻는 모양입니다.

“아니, 집 옆 도로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잘라서 주차장을 넓게 만들고 집 근처에 있는 풀들을 뽑고 있는데.”

“그래요?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습한데 그런 일을 했소. 이러다 동네 이장 되는 것 아니요?”

“이장이고 삼장이고 통장이고는 내 알 바 아니고 수박 있으면 시원하게 얼음 동동 띄워서 화채나 만들어 주세요. 이장 사모님!”

“이장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 모양이네. 곧 준비할 테니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이장 나오라~”

밤에 동네에 있는 호박당구장에서 당구를 두어 게임하고 집으로 오는데 아침에 작업했던 갓길 주차장에 차 세 대가 보입니다.

아주 작은 봉사였지만 그 차들을 보니 어떤 보람이 느껴집니다. 봉사라는 것이 이런 흐뭇함이 있는 것이구나 싶으니 내일 아침에는 반대편 갓길도 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이러다 진짜로 이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은근히 걱정됩니다.

Letter 06

아버지 일어나세요

정은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오 전 8시 50분 오늘도 변함없이 집과 3분 거리에 있는 친정으로 향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다. 91세인 아버지는 지금 쫘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실까? 아니면 엄마의 분주함 속에 잠들지 못하고 눈만 감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친정에 도착하면 우선 아버지 좋아하시는 여성시대 들려드리게 라디오 주파수를 95.9에 맞춰 놓는다.

9시가 되면 오른손엔 지팡이를 짚고 왼손은 내 손을 꼭 잡은 86세 엄마를 아파트 입구에서 주간보호센터 차량에 태워 등원시키고 올라오면 아버지는 그 짧은 사이에 코 골며 잠들어 계신다. 오래전부터 거의 매일 똑같은 광경이라 이젠 그러려니 한다. 숙면에 드신 것 같아 휴대폰에 무선이어폰을 연결해 여성시대 들으시라고 라디오를 끄면 아버지는 귀신같이 아시고 말쑼하신다.



“라디오 듣고 있으니 끄지 마라~”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계시고 나는 여성시대 1부가 끝날 즈음 식사 준비가 다 되어 “아버지, 식사하시게 일어나서 손 씻고 오세요~”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깨우면 “오냐, 알았다~” 하고 대답은 하는데 통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신다. 그러면 나는 똑같은 말로 아버지를 다시 깨우고 아버지는 또 똑같이 대답하시는데 몸은 요지부동 소파와 한 몸이 되어 계신다. 식탁 위에 음식이 다 차려진 상태에서 똑같은 말이 몇 번 오가다 보면 슬슬 짜증이 나려 한다. 겨우 몸을 일으킨 아버지는 이번엔 소파에서 눈을 감은 채 한참이나 앉아계신다. 또 한 번 재촉하면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 식사하시는데 이어서 아버지 지인들에게 몇 통의 전화가 걸려 온다.

“아버지, 급한 일 아니면 식사 후에 전화하겠다고 하고 식사부터 하세요~”라고 말해도 아버지는 아랑곳없이 통화를 계속하신다. 통화가 짧게 끝나면 다행인데 길어지면 속에서 뭔가 훑~ 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다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아침 식사는 하셨는지 안부 정도 묻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길어져서 밥과 국이 식으니 내 속은 타들어 가고 짜증이 나지만 버럭 하실 아버지 성격을 잘 알기에 내색하지는 않고 아버지께 말씀드려 본다.

“아버지, 아침에 늦잠 주무시고 싶으시죠? 매일 일어나시라고 깨우는 저도 미안할 때가 많으니 꼭 주무시게 11시쯤 와서 아침 겸 점심으로 식사 차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날 테니 평소 시간대로 너는 밥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아버지는 매일 그 약속을 어기신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식사 차려드리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다.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뿌듯하고 고맙다. 다만 잠든 아버지를 깨우는 게 너무 힘들다. 한두 번 깨워서는 안 일어나시는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인데 아버지는 그걸 모르시는 것 같다.

생각해 보니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도 잠이 많으셨다. 휴일에 집에 계실 때면 거의 누워서 지낸 걸로 기억될 정도다. 식사 후 바로 주무시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다고 5분 만이라도 앉아 계시라 해도 아버지는 소파로 가서 1분 안에 잠드시는데 요즘 들어 더 심해졌다. 다른 연세 많은 어른신이 잠이 안 와서 수면제의 힘을 빌어야 주무신다는데 말이다.

외출이 없는 날이면 24시간 중의 23시간을 주무신다. 팔, 다리에 근력이 다 빠지고 배만 부른 전형적인 노인 몸매로 변해서 ‘가족 모두

걱정 많이 한다'고 함께 산책이라도 하자고 해도 아버지는 “오늘 당장 죽어도 내 나이가 아까운 나이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하며 운동하기를 정말 싫어하신다. 내 자식 같으면 억지로라도 끌고 나가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변한 몸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한 달 사이에 부쩍 기력이 쇠약해져 요즘 링거를 자주 맞는데 효과가 오래 가질 않는다. 이런 아버지한테는 특이한 음식 습관이 있다. 어떤 음식이 입에 맞으면 그 음식이 질릴 때까지 몇 달간 계속 드신다. 올해 초엔 미역국에 빠져 6개월간 드셨는데 국 끓이는 사람이 질릴 정도로 미역국을 산모보다 더 많이 드셨다. 요즘은 밀면과 소 양념갈비를 빼져 점심때 무조건 밀면 곱빼기에 아침저녁으로 소 양념갈비를 드신다. 그래서 자매들 단체문자방에 <아버지께서 밀면을 매일 드시니 밀면 값이 장난 아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더니 밀면 값으로 큰 언니가 30만 원, 작은 언니가 20만 원과 덤으로 갈빗값 30만 원까지 보내줬다.

아버지는 고지식하고 고집 센 옛날 사람이라 자식이 노부모 보살피는 게 당연하고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걸 불효라 생각하신다. 또 시대에 맞지 않게 당신 사후에는 화장 대신 매장을 해서 유생들을 모셔 놓고 고향 선산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처럼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 뜻에 따를 생각이다.

아버지는 주름지고 늙은 모습 외엔 그대로이신데 아침마다 아버지의 행동에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걸 보면 나는 효녀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동생이 자매들 문자방에 올린 <언냐들, 우리 아버지 돌보는 거 장기간 해야 될 것 같으니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빨리 소모하지는 말자. 나중에 지친다> 이 말을 떠올리며 나는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힘을 내서 친정으로 향할 거다.

Letter 07

복날에 오신 손님

진영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저는 부산대학교 인근에서 봉어빵과 옥수수를 파는 '등기소 봉어빵 아저씨'로 불리는 60대 아재입니다. 지금은 이전했지만 옛 등기소 자리에서 봉어빵을 굽다 보니 손님들이 '등기소 봉어빵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봉어빵은 겨울철 길거리 음식이라 더운 여름날엔 제가 없고 대신 아내 혼자 가판대를 펼쳐 놓고 파라솔 아래서 옥수수만 팝니다. 제가 오전에 대형 압력솥에 옥수수를 삶아 놓으면 아내는 투명 지퍼백에 3개씩 넣어 포장해서 팔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위에서 주차관리 알바를 하다가 아내가 전화로 '옥수수 다 팔리고 없다'고 하면 가서 또 삶아주고 주차관리 알바 일을 이어갑니다.

아내 혼자 장사하기에 걱정돼 시시때때로 상황을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어~ 지금 옆에 카페 여사장님이 냉커피랑 얼

음물 갖다주셔서 괜찮아. 별로 안 더워~”라며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밝을 때는 더워도 옥수수를 많이 팔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님이야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매상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나 봅니다.

사실 아내는 10년 넘게 파킨슨 약을 달고 살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혼자서도 옥수수 장사를 할 정도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다 수년간 인사와 대화하며 인연을 맺어온 붕어빵과 옥수수 손님들 덕분입니다. 손님들이 저희를 살갑게 대해주시고 특히 아내한테 ‘많이 좋아졌다’는 덕담과 희망을 주시니 아내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나아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내가 파킨슨 때문에 말투와 발음이 좀 어눌한데 손님들은 내색 없이 평범하게 대해 주십니다.

지난여름 초복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포장마차에 옥수수를 삶아주고 인근에서 주차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와? 옥수수 또 삶아야 되나?”

옥수수를 삶는 일은 가스 불도 위험하거니와 물 양 조절과 간 맞추에 신경 써야 하기에 늘 제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옥수수 삶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하는데 뭔가 할 말은 있는데 당황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뜻밖의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면 파킨슨 환자는 몸을 떨거나 생각과 달리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10여 분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로 달려갔습니다.

“와? 뭘 일 있었나?”

“어떤 여자 손님이 옥수수를 사 가셨는데 이걸 주시면서 먹으래. 오늘 복날이라고..”



가판대 위엔 삼계탕이 밀폐용기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손님더러 가져가서 드시라고 하니 그 여자 손님이 “저희도 있어요. 오늘 복날이라 저희 거 끓이면서 여기 생각나서 더 끓였어요. 겨울에 아저씨가 봉어빵도 덤으로 더 주고 양금도 많이 넣어 주시고 감사해서 끓였으니 맛있게 드세요!” 하더랍니다.

아내의 말과 기억이 띄엄띄엄 이어졌지만 대략 그랬습니다. 저희야 단골손님 댁으러 덤도 드리고 맛있게 구워드리는 게 당연하고, 지금은 계절 특성상 봉어빵도 팔지 않는데 일부러 삼계탕을 끓여 갖다주셨다니 너무 고마워서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만약 그분이 다시 손님으로 오셔도 아내는 그 고마운 분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몇 번을 만나도 지나고 나면 얼굴은 물론 나눴던 대화도 기억해 내지 못하는 병이 파킨슨입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없었기에 그분의 얼굴을 몰라 나중에 봉어빵 손님으로 다시 오셔도 고마움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님이 “제가 복날에 삼계탕 끓여 드렸는데 맛있었나요?” 하고 직접 털어놓지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용기를 열었더니 뽕얀 국물에 대추, 밥, 인삼 등 갖은 약재가 듬뿍 든 삼계탕이 예쁜 자태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에어컨도 선풍기도 켜지 않고 땀을 흘리며 맛있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성스레 끓여주신 음식을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고 호사스럽게 먹으면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에 땀 뻘뻘 흘리며 보약처럼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아내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인생 최고의 복날을 맞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손님 여러분들 덕으로 잘 지내고 있고 그렇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찬 기운을 느낄 즈음이면 봉어빵을 구울 겁니다. 더 맛있게 덤을 듬뿍 담아서 고마움에 답하겠습니다.

매일 시원한 얼음물과 냉커피 간식을 챙겨 주시는 ‘카페 여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옥수수를 처음 팔 때부터 몇 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찾아주시는 ‘옥수수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옥수수 아가씨’라 부르는 분은 장사하는 장소를 서너 번 옮겼는데도 변함없이 찾아주십니다. 그밖에 고마운 분들을 일일이 소개하자면 족히 책 한 권은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정성으로 삼계탕을 끓여와 주신 고마운 여자 손님께 행복과 평온,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등기소 봉어빵 옥수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Letter 08

유명 무명이 뭐가 중요한가

김선호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강사 초청회가 있어서 다녀왔다. 그런데 나는 강의를 다 듣지 못하고 나왔다. 청소년 심리 강의여서 중·고등학생이 많이 참석했는데 강사가 입장을 하자 아이들은 하나둘씩 이어폰을 끼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혹시 이어폰을 꺼야 들리는 강의인가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이어폰은 강의를 듣는 데 아무 필요가 없었다. 강사는 혼자 벽을 보고 말하는 느낌을 받았겠지만 강사료 때문인지 사명감 때문인지 열심히 목청껏 강의했다.

그런데 나 역시 그 강의를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들 대부분이 “야, 우리 끝나면 점심 뭐 먹을래?” “야~ 잠 오지 않나?” “어후 시간 아까워. 이럴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 텐데” “난 진짜 학교에서 강제로 가라 해서 왔지 아니면 진짜 안 왔다” 이러면서 투덜거리는 게 계속 들렸기 때문이다. 내가

다 민망하고 정신이 없어서 강사분한테는 너무 죄송했지만 중간쯤 강의실을 나와 버렸다.

강의실을 나와 근처 호숫가를 거닐다가 그 강사분과 딱 마주쳤다. 나는 바로 눈을 피했다. 강의실에 아줌마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나를 봤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강사분이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불쑥 이렇게 말했다.

“아까는 고맙습니다.”

엥? 뭐지? 순간 나는 나를 비꼬는 건가 싶었다.

“저도 압니다. 요새 누가 이름 없는 강의를 들으려고 하나요. 그래도 학부모 입장에서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애기를 더 들어보니 얼마 전 어느 학교 학부모는 ‘애들 공부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강의를 들으러 다니게 한다’고 학교에 항의 전화까지 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분께 위로의 커피를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커피를 받아 든 강사분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야 흘러들어도 몇 번 들으면 아이들이 바른 길과 아닌 길쯤은 구분할 수 있을 거란 신념으로 강의료는 적지만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중학교 때 나는 소위 엇나가는 아이였다. 교복 치마에 핀침을 꿰고 난간 타고 백마지 몰래 입고 롤러장 가고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쓸데없이 몰려다니고 나쁜 짓은 안 했지만 공부에 전념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께서 처음에는 불러다 앉혀놓고 타이르고 나중에는 어디서든 마주치기만 하면 꼭 나에게 한마디씩 조언을 하고 가셨다. 그때는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이어폰 대신 손으로 귀를 막곤 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시시때때로 듣기 싫게

하셨던 선생님 말씀이 자꾸 떠올랐다.

“빨리 돌아와~ 넌 하면 정말 잘할 놈이야~”

별 말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나도 진짜 뭔가 해내지 않을까’ 용기가 났고 열심히 한 결과 대박을 맞았다. 꼴찌에서 빌빌거리던 내가 평균이 30점이나 오른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뭐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됐고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다.

버스가 갑자기 덜컥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아까 함께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버스를 잡아 세운 모양이었다. 나도 모르게 버스에 탄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 그중 한 애가 말했다.

“야~ 아까 우리가 너무했어. 강사한테 좀 미안하더라.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무명 강사가 될지도 모르잖아? 앞으로 우리 최소한 예의상 듣기는 하자고~”

그 말에 비웃는 녀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역시 아까 그 강사님 말씀이 맞았다. 유명한 강사, 소문난 명강의가 아니어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렇게 꾸준히 조금씩 세상을 바꾸겠다는 성실함이 통한 것이다.

나는 전업주부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무심히 묻는다.

“아이도 다 컸는데 왜 놀아요?”

“안 심심해요?”

“남편 혼자 별어서 어떻게 살아요?”

다들 뭘 모르는 소리다. 나는 원래 전업주부가 꿈이었다. 그냥 노는 주부가 아니라 집안일을 아주 야무지게 다 해낸 다음 문화센터에 가서 그림도 배우고 도자기로 토우 인형도 만드는 주부!

어릴 땐 형제 많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돈 버는 일에 열중해야 했지만 착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난 덕분에 결혼 후엔 꿈이었던 전업주부를 이뤘고 아이들도 잘 키워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릴 때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던 그림도 배우고 도자기로 토우 인형도 만드는 작가가 되려고 준비 중인데 이 모든 걸 내가 시간이 남아서 지루함을 이겨내려고 하는 행위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만의 꿈을 잘 이뤄 나가고 있으니까.

비록 그날 강의 중간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 강사님 말씀처럼 나도 끊임없이 듣고 또 듣게 한다는 자세로 조금씩 나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힘을 쌓고 있다.

그토록 배우고 싶던 것들을 배우면서 차근차근 새로운 꿈을 이뤄가는 내가 나는 자랑스럽다. 유명한 운동선수, 배우, 과학자 이런 글자가 붙어야만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내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그런 나를 거칠지 않게 뽐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강사님, 그날 강의 외 시간에 해주신 말씀 깊이 받아들여 꾸준히 열심히 잘 살아가겠습니다. 강사님도 파이팅 하세요.

Letter 09

미국에서 온 아이들

윤성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지 난달 딸이 손자 둘을 데리고 미국에서 왔다. 사위는 열흘 있
다 미국으로 가고 딸은 근 한 달을 친정에서 머물렀다. 만 세
살, 다섯 살 남자아이들을 딸과 함께 돌보았다.

한국에 오자마자 아이들을 봤을 때는 듬직해 보여 딸에게 그동안
아이들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키웠다고 마냥 칭찬했다.

아이들은 나이에 비해 몸집이 크고 힘이 셸다. 손자들이 이불에서
들러붙어 레슬링을 하면 다칠까 겁이 났다. 팽이처럼 제 자리에서 돌
다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뛰어 튀어 나갈 때는 붙잡을 도리가 없다.

시시때때로 먹고 마시는 꼬마들 챙기다 보면 나는 기진맥진해져 땀
이 난다. 이들을 돌보며 내 체력이 바닥났을 때는 내 인내의 마지노선
을 경험한다.

한 번은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중노

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일단은 결혼 후 거의 8년을 딸네와 떨어져 살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스트레스가 컸다. 문화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 서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내 힘을 빼고 나를 지치게 한다.

매일 옷을 갈아입는 습관, 샤워 후 엄청난 양의 수건들, 남은 음식을 몽땅 버리는 습관 등이 적응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는 늘 딸에게 맞추려고 눈치 보며 애써야 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큼 힘들었다. 아이들 교육도 모처럼 내 주장을 했다가는 바로 나만 바보가 된다. 젊은 사람 주장을 어찌 이기랴.

갑작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한 번은 유치원 버스에서 졸며 집에 오던 막내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할머니~” 부르더니 내 품에 폭 안겨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다. 아마도 유치원에서 뺑세게 논 모양이다. 아무리 깨워도 깨질 않는다. 나는 체중이 20kg이 다 되는 아이를 안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냥 앉아 있자니 덥고 힘들어 여동생에게 전화해 좀 도와 달라고 했다. 다행히 이웃에 사는 동생이 도와서 겨우 데리고 들어왔다.

나중에 늦게 불일을 보고 돌아온 딸은 이 극한 수난사를 듣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는 죽을 등 살 등 한 일을 딸은 별일 아니란 태도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행복한 때도 있었다.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들이 달콤한 것이 먹고 싶으면 그 작은 손으로 나를 이끌고 가 말랑한 사탕 봉지가 있는 선반 앞에 딱 서 있다. 그러면 나는 사탕 한 알을 주면서 큰 소리로 벽에 붙여 놓은 한글판에 있는 한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아야어어오우유’를 외치며 따라 하게 시킨다. 그러면 그들은 달콤한 우유사탕을 하나씩 입에 물고 소리 높여 나를

따라 한다. ‘그래! 한 말의 쓸개즙보다 꿀 한 방울이 배움으로 인도하는 거야’ 하면서 미국에서 한국어를 잃어버릴까 봐 틈날 때마다 가르쳤다. 한 번은 ‘대’자를 ‘대가리 대’라고 했는데 딸이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물었다.

“엄마,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는 무안하여 씩 웃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글을 가르치려는데 감사 대신 구박이니 기운이 살짝 빠진다.

그렇게 한 달을 서로 비벼대며 같이 살았다. 평소 공주 같다는 소리를 듣던 나는 이들이 있는 동안 무수리처럼 막무가내로 일했다. 쓸고 닦고 먹이고 입히고 재웠다. 목구멍까지 불평이 올라오는 때도 있었지만 입을 꼭 다물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밤이 되면 “할머니, 나랑 내 곁에서 자야 해요~” 그러며 내 양팔에 손자들이 하나씩 매달려 함께 자자고 손을 잡아당기니 고단함이 스르르 풀어진다.

에너지가 넘치는 꼬마 아이들은 아침이면 용수철처럼 발딱 일어나 강아지들처럼 뛰어다닌다.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면 나는 정신 못 차린다.

“애들아!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이 올라와요. 까치발 들자!”

말해도 듣는 등 마는 등 하다. 나는 가슴 졸이며 아이들 발에서 자꾸 벗겨지는 층간소음 덧신을 들고 졸졸 따라다닌다.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이 되었다. 나는 시원하면서도 못내 섭섭하여 새벽부터 일어났다. “어휴~ 이 고생도 오늘로 끝이다. 조금만 참자~” 하는데 손자 하나가 “아~ 나는 빨리 미국 가고 싶다. 비행장에도 가고 싶고…” 뼈 빠지게 고생하며 돌보고 듣는 소리다.

마지막 날에도 아이들과 씨름하라 딸이 가져가는 짐 가방 챙기라

진이 몽땅 빠졌다. 하도 고단해 내가 멍하게 애들을 바라보며 서 있자 “할머니가 니들 땀에 탈탈 털린 표정이시네” 하면서 딸이 깔깔 웃는다.

아무 대가도 없이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애쓰는 내 모습에 내가 놀랐다.

딸은 자기애들과 남편으로 맘속이 가득 찬 여인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고생하는 부모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딸 모습이 낯설지 않다. 나도 내 엄마의 주고 또 주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말이다. 이런 짝사랑의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싶은데 아마도 내가 죽는 날 까지란 생각이 든다.

나도 내 엄마처럼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딸을 키웠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싶었다. 하지만 끝없는 희생과 봉사 끝에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니 별 가망이 없다. 자식이 뭐길래~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

그동안 화날 때마다 몇 번을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이제는 오지 마라~’고 딸에게 속 시원하게 하려던 말을 꼭 참고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다.

석별의 정만 남기고 떠나가는 손자들을 안고 입 맞추고 사랑하는 딸이 떠나는 비행장 입구에 서 있다.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든다. 눈에는 눈물방울을 머금고 말이다.

Letter 10

엄마를 찾아서

조태성 | 경북 안동시 옥서길

비가 온다. 낮은 소리로 유행가를 읊조리던 엄마의 얼굴이 생각난다. 무척이나 낭만적이었던 분이였다. 꼭 닮은 내가 이 비가 오는 날 그녀를 그리워한다. 아름다운 용모로 인해 팔자가 어렵게 풀린 그녀의 사연을 내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다. 많은 세월이 흘렀건만 그립고 그리운 엄마!

엄마는 전쟁고아, 아빠는 1·4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온 실항민이었다. 둘은 외로웠다. 하나가 되었다. 아이가 생겼고 급하게 결혼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둘의 외로움은 커져만 갔다. 아빠의 해소되지 않는 외로움은 폭력으로 변해 갔다. 점점 심해지는 아빠의 외로움에 엄마는 집을 나갔다.

서울 봉천동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네 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중 나는 장남이다. 국민학교 1학년이다. 국민학교 입학식 날

맨 앞줄에 서야 했다. 나는 왜소하고 키가 무척 작았다. 모든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데 난 엄마가 없었다.

교회에 가서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큰형들과 노는 것을 즐겨 했다. 지기를 싫어하고 공부에는 관심 없었다. 팽이치기와 구슬치기왕이었다. 장롱에는 구슬이 가득했다. 가수 남진의 노래를 똑같이 부르는 봉천동 산동네 스타였다.

아빠가 저녁에 만 원을 주시면서 청자 담배 하나를 사 오라고 하셨다. 나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서울역으로 갔다. 엄마가 보고 싶었다. 아빠가 잡으러 올까 봐 겁도 나고 해서 무작정 대구행 열차를 탔다. 엄마의 고향은 포항이다. 그곳에 이모가 살고 계신다. 그곳으로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열차는 달리기 시작했고 나는 이내 잠이 들었다.

동대구역에 내렸다. 포항 가는 열차는 내일이나 되어야 있었다. 나는 역내에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일까지 기다리려는 생각이었다. 그때 낯선 아저씨가 옆으로 와서 왜 늦은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자세히 생각은 나지 않는다. 그 아저씨가 자기 집에서 자고 내일 포항으로 가라고 했다. 고마운 아저씨 집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아마도 어린아이가 혼자 역내에 있는 것이 불쌍해 보였던 모양이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엄마가 바로 앞에 있는데 낯선 아저씨가 날 못 가게 막는 악몽이었다. 아침에 아저씨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고 포항 가는 기차표를 끊어 주어 엄마가 있을지 모르는 포항으로 갔다.

사실 나는 엄마와 함께 포항 이모 집에 딱 한번 가본 적이 있었다. 이모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포항 우체국에 근무한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다. 포항역에 내렸다. 엄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

각에 가슴이 설렸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냥 걸었다. 포항 시내를 하염없이 걸었다. 우연히라도 엄마나 이모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걸었다. 이내 저녁이 되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부르면서 걸었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불이 켜진 건물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리로 향했다. 그곳은 동사무소였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엄마를 찾으러 서울에서 왔다고 말했다. 숙직을 서고 있던 아저씨가 사정이 딱한 나를 보고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내일 엄마를 찾아보자고 하면서 나를 숙직실에서 자도록 허락해 주었다.

아저씨는 다음 날 이모의 주소를 찾기 시작했다.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모의 직장 이름을 참고로 하여 이모를 찾아주었던 것 같다. 이모는 무척이나 놀라워하는 표정이었다. 그곳에도 엄마는 없었다. 엄마를 찾으려서 평평 우는 나를 껴안고 이모는 같이 울었다. 엄마는 포항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아빠가 찾으러 올 걸 예상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간 모양이었다.

엄마가 보고 싶었다. 아빠한테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달려온 엄마의 고향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모는 다시 서울로 가라고 했다. 나는 싫다고 했다. 엄마가 여기로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겠다고 했다. 며칠을 엄마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모 집에서 머물렀다.

외삼촌이 내 손을 잡고는 서울로 가져고 했다. 나는 싫다고 떼를 쓰면서 울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엄마를 부르면서 우는 나를 힘으로 제압한 삼촌은 서울 가는 버스에 나를 태우고는 함께 아빠에게로 갔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아빠에게 혼날 생각에 겁을 잔뜩



먹고 있었다. 아빠는 나를 보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냥 소주만 마시고 계셨다. 그냥 그렇게 술만 마시고 계셨다.

어릴 적 내가 감행한 최초의 여행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그만큼 엄마가 절실히 그리웠다.

오늘 엄마의 산소에 다녀왔다. 비가 내리는데 엄마는 돌이 되어 있었다. 오십 대 후반이 되어버린 어린 자식이 엄마의 산소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던 엄마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프다. 엄마와 똑 닮아 무척이나 감상적인 내가 엄마에게 말한다.

“미안해, 엄마! 보고 싶어.”

Letter 11

외상 택시비 받으러 갔다가

노문식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시골의 어느 집에 택시 외상 요금을 받으러 갔습니다. 자꾸만 손님이 줄어드는데 16,5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태운 손님은 60대로 보이는 여자 손님이었습니다. 어느 성당 앞을 지나는데 몸을 흔들던 여자가 제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 탄 여자에게선 술 냄새가 났지만 30분 정도 거리라 요금이 꽤 나올 생각에 즐거웠습니다. 거기는 가본 동네라 익숙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기사님, 오늘따라 바다가 보고 싶으니 저쪽 길로 갑시다.”

손님의 말에 좀 멀었지만 손님이 가고 싶다니 갈 수밖에 없었죠.

“손님, 여기서 내리실래요? 골목길이라 차가 들어가기 어렵네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좁은 골목길을 부득부득 가자는

손님 말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느 집 담에 차를 긁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목길은 웬만하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몸이 매우 불편하거나 짐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여자 손님은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손님은 “다른 기사들은 우리 집 앞에서 세워준다고요.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릴 생각을 안 하더군요. 택시요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16년 택시 운전 경력의 저는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그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을 기다리는 제게 여자는 “돈 없어. 다음에 와”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팡! 닫아버리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잠시 서 있다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 택시비 주세요. 16,500원인데 16,000원만 주세요.”

달힌 방문을 두드리며 달라고 했습니다.

“돈 없다니까! 다음에 오라고!”

여자는 오히려 큰 소리로 말했죠. 저는 함부로 여자 방문을 열 수가 없어서 “다음에 오면 꼭 주세요”라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 며칠 후 일요일에 그 집으로 택시비를 받으러 갔는데 여전히 그녀는 돈이 없다며 끝내 안 주는 겁니다. 화가 났지만 없다는 걸 어찌 합니까. 동네로 나오니 어떤 어르신이 길가에 앉아 계시더군요.

“저 집에 사는 아주머니 어떤 분입니까?”

여쭙며 택시요금을 못 받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거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죠. 혼자 사는 사람인데 택시요금을 받으러 오는 기사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살아라. 떡 사 먹었다고 생각하지 뭐...’

저는 그 집을 향해 침이라도 빨고 싶었지만 그냥 돌아섰습니다. 기

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차에 오른 후에도 저는 혹시 시내로 나가는 손님이 있는지 본능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 제 눈에 모자를 쓴 어느 아주머니가 바쁘게 걷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가끔 입을 점퍼와 비슷한 옷을 입었지만 세상에는 비슷한 옷이 많으니깐요. 그리고 아내가 이 동네까지 올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행여나 그 아주머니가 택시를 세울까봐 속도를 줄이면서 얼른 보니 마스크까지 쓴 아주머니는 일부러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나는 택시를 탈 사람이 아니거든요’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시내 나가려면 택시요금 장난 아닌데 웬만하면 안 타지.’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달려오며 손을 마구 흔드는 게 백미러에 보였습니다.

“옆에 지나갈 때 타면 좀 좋아. 그래도 오늘 못 받은 요금을 채울 수 있겠군.”

저는 차를 후진해 아주머니 옆에 댔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앞문을 벌컥 열고 올라탔습니다. 대개의 손님은 뒷좌석에 타거든요.

“아니! 당신은 몇십 년을 함께 살고도 아내를 몰라서 그냥 가냐?”

맙소사!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이모한테 다녀오는 길이라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중이었죠.”

“어쩐지 많이 본 옷이다 그랬지. 그런데 당신은 내 차를 16년간 봤으면서 차번호도 몰랐냐?”

“나도 처음에 당신 차인지 몰랐지. 그런데 차번호가 어디서 많이 본 번호더라고.”



칠십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제 조금씩 희미해지는 기억력을 안타까워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택시요금 못 받은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뭐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다 있어? 다시 가져! 내가 받아줄게” 그러며 소매를 걷는 척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내는 마음이 여리고 싸움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도 그 말이 위로됐습니다.

“기사님, 남은 시간도 운전 조심히 하고 오세요~”

아내는 제 옆에 2만 원을 놔두고 내렸습니다. 주머니돈이 싹짓돈인데 말이죠.

Letter 12

모바일 세상

강성환 |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지 금 우리는 모바일로 카드나 선물을 보내는 세상에 살고 있다.
누군가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다.

‘오늘은 제 생일이고 5일 뒤에는 오빠의 생일이예요. 오빠가 모바일로 케이크를 보내줬는데 갖고 있다가 오빠 생일날 다시 돌려줘야 하겠어요. 제가 돈이 없거든요.’

하자 진행자가 ‘케이크를 닷새나 두면 상하지 않을까요?’ 했다. 그러자 다른 청취자 문자 하나가 소개된다.

‘모바일이라 실물로 케이크가 오가지 않고 메시지만 오가는 거예요.’

그러자 진행자가 “어머? 그런 거예요? 몰랐어요. 부끄러워요” 했다.

세상은 바야흐로 모바일의 시대다. 20여 년 전 나도 석기시대라는 별명으로 돌도끼만큼 큰 휴대전화를 사용했었다. 삐삐도 있었고 017, 016, 019 등 다양한 통신사도 있었는데 요즘은 010뿐이다.



학창 시절의 일이다. 정상적인 크리스마스카드를 살 여력이 없고 주고받을 사람은 많은데 묘안은 직접 만드는 것이었다. 도화지를 카드 크기로 잘라 반 접고 창호지를 구겨 여기저기에 다른 색 물감을 칠해 펴 말리면 기하학적인 무늬가 나온다. 그럼 그걸 접은 카드 앞면에 곱게 풀칠해 붙이고 안에는 일상적인 문구를 썼다. 주로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과 친척 어른들께 보낸 기억이 난다. 마지막 카드는 장인어른과 손윗동서들이었던 것 같다. 방송국에도 예쁜 엽서 전시회에 보내기 위해 디자인도 열심히 했는데 등수에는 한번도 들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빨리 변한 세상에 살고 있다. 내가 어찌 컴퓨터라는 것을 사용하고 고치고 조립을 해 팔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을까?

나는 정말 공부를 못했다. 오죽하면 내 실력으로 들어갈 만한 고등학교가 없자 형이 아이디어를 냈다. 내가 아무 고등학교나 들어가면 갖고 싶은 것 사준다고. 당시 형은 군대 전역을 해 마땅한 직업도 없이 복학 준비만 하고 있을 때였는데 속없는 나는 “형, 정말이야? 나 고등학교 들어가면 21단 자전거 하나 사주라.” 당시 21단 자전거는 남학생들에게는 로망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등학교 전자과에 입학했고 형에게 입학 선물을 바꿔 달라고 했다. 8비트 컴퓨터였다. 난 그 8비트 컴퓨터를 남들보다 앞서서 사용했고 지금도 컴퓨터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그때 형이 입학 선물로 컴퓨터를 안 사주고 굳이 21단 자전거를 사주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자문도 해본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저 돈만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택한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제 보름 뒤면 형의 62회 생신이다. 할아버지가 된 형에게 초등학교 들어간 손녀에게 쓰라고 봉투 하나를 전해드려야겠다. 형, 정말 고마웠어요.

Letter 13

이야기가 있는 채소가게

안경희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이 직을 준비하며 한 달간 온전히 나만의 자유와 휴식을 누리려 했던 계획들이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여태 네 동생이 가게를 봐줬는데 시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서 간병도 해주고 밥도 해줘야 할 상황이니 가게를 볼 사람이 있어야지.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은 줄 테니 이번 여름 동안만 네가 가게 좀 봐줄래? 엄마가 밭에 가서 작업해야 하는데 가게를 마냥 비울 순 없잖나~”

엄마는 농사를 지으며 근처에 조그마한 채소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다. 그동안 가까이에 사는 동생이 가게를 봐줬는데 사정이 생긴 거다.

아아~ 갈등이 생겼다. 일 때문에 미루었던 여행 계획이며 미술전시회 관람 계획 등을 모두 올스톱 해야 했다. 하지만 농사일로 굵고 휘어진 엄마의 허리와 다리가 눈에 들어와 내 계획이나 꿈 따윈 다 사치로 느껴졌다. 나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엄마에게 큰딸로



서 효도할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장사 경험이 전무했던 내게 가게를 보는 것이 쉽진 않았다. 길고 긴 기다림, 손님들의 성향도 다양했고 장사 초보인 내게 물건값을 흥정 해오는 손님들을 충족시켜 줄 노하우와 순발력이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손님을 대하다 보면 그 마

음이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장사에 임했다. 손님들은 주로 중장년층부터 연세 드신 어머님들이 많았다. 장사하는 기간 동안 내겐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분의 손님이 계셨다.

하루는 할머니 한 분이 유모차를 지지대 삼아 밀고 장을 보러 오셨다.

“내일 내가 수술하러 가는데 미리 장을 좀 봐 놓으려고~”

할머니는 토마토, 애호박, 대파를 사서 장바구니에 담으셨다.

“내가 얼마 전에 배에 복수가 차서 큰 수술을 받고 죽다가 살아났어. 이번엔 백내장 수술 받으러 가는데 못 깨어날까 봐 괜스레 겁이 나더라고~”

할머니의 눈빛에 불안함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나는 할머니의 두 손을 살포시 잡아드렸다.

“할머니~ 죄송한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든넷이야.”

나는 할머니 손에 삶은 옥수수과 두유를 드리며 말했다.

“이거 가져가서 맛나게 드세요. 그리고 할머니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 저희 아버지도 할머니보다 더 많은 연세에 백내장 수술 거뜬히 받고 퇴원하셨는데 받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인대요. 여든넷이면 청춘이신데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던 할머니의 얼굴에 소녀처럼 해맑은 미소가 수채화처럼 번졌다.

“아휴! 어쩔 이리 말도 이쁘게 할까? 그리고 뭘 이리 많이 챙겨 주누. 오늘 내가 요즘 말로 게 탕네그려. 고마워.”

“할머니, 건강 회복하셔서 담에 또 가게에 놀러 오세요.”

유모차를 밀고 가시던 할머니께선 몇 번이고 돌아서서 손을 흔들며 내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손님은 마르고 왜소한 체격의 아주머니셨는데 토마토를 사러 왔다가 지갑을 두고 나왔다며 느닷없이 외상을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주셨다.

“제가 장애아이를 가진 엄마인데 우리 애가 토마토를 너무 좋아해서요. 아이가 한 번씩 괴성을 지르고 울어대면 제가 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도 나오면서 정신이 쪽 빠져 지갑까지 두고 나와 버렸네요.”

플꽃처럼 여러디여린 그 엄마의 눈가가 축축이 젖어 있었다. 그 모습을 들킬새라 얼른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아주머니, 외상 드릴게요. 천천히 주셔도 돼요. 대신 저희 가게 자주 찾아주세요. 꼭 물건 사러 오지 않더라도 저는 한가하니까 커피 한잔하러 오세요.”

뜻밖의 제안 때문이었을까 조금 전까지 지쳐 보였던 얼굴에 열은 미소가 번졌다. 그분은 토마토를 들고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금을 건네주고 가셨고 그 후로도 몇 번이고 우리 가게를 찾아주셨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가게를 거쳐 간 손님 중 유난히 기억에 남는 두 분의 손님. 이렇게 나름의 마음 아픈 스토리가 있는 손님들을 접하다보면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져 왔고 어느새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는 나를 발견한다. 엄마 가게 일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아픔도 공감하며 상처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비록 아직 준비하며 나만의 여행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장사를 통해 다양한 분들을 접하고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나름의 이야기가 있는 채소가게의 문을 닫고 나는 또 내일을 준비한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분들이 우리 가게의 문을 두드릴지 작은 기대에 가슴이 설렌다.

Letter 14

강낭콩은 그렇게 익어갔다

박희종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초 가지봉 위로 큰 감나무가 넘실거린다. 바람 따라 풋감이 그네를 타면 감나무 앞에 머물렀던 빗방울이 툭하고 떨어지고 호젓한 뒷마루에선 가늘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오전 밭일을 하다 큰 빗줄기에 쫓겨 오신 아버지가 고단한 몸을 누인 것이다.

아버지가 고단함을 이기지 못해 코 골며 한나절을 보내는 사이 어머니는 쉴 틈이 없다. 실하게 영근 강낭콩을 까서 양재기에 던져 넣는 소리가 한가롭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다. 텃밭 일을 하다 거센 빗방울을 핑계로 잠시 쉬실 만도 하지만 어렵었다. 희끗희끗한 성근 머리에 허연 수건이 질끈 묶여 있다. 쉼 없이 강낭콩을 까는 어머니는 늘 밥이 싱겁다고 하셨다. 밥이 싱거워 강낭콩이라도 넣어야 한다던 어머니. 나는 콩이 싫는데 밥이 싱겁다며 강낭콩이나 팥, 보리를 넣으신다. ‘밥이 왜 싱겁다 하실까’ 늘 궁금했다.



오후에 아내가 텃밭에서 수확한 강낭콩을 까고 있다. 자그마한 텃밭은 넓어야 10평도 되지 않지만 보물 창고다. 값으로 따지면 보잘 것도 없는 채소며 토마토, 강낭콩 등을 수확해 요리하며 신기해한다. 땅에 심어만 놓으면 싹이 돌아 고추가 열리고 토마토가 붉어지는 자연의 신비함 때문이다. 빈구석에는 아욱씨와 시금치씨를 뿌려 놓고 텃밭에 심은 강낭콩이 영글자 아내가 까고 있다. 오래전 어머니의 모습이 퍼뜩 떠오른다.

장맛비가 머뭇거리는 날, 어머니는 ‘밥이 싱겁다’며 강낭콩을 까셨는데 늘 궁금했던 ‘밥이 싱겁다’는 말. 이젠 철부지가 어머니의 세월이 되어보니 밥이 정말 싱거워졌다. 밥이 싱거워 그렇게도 싫어하던 콩을 넣고 현미를 섞어 밥을 지어 먹는다.

이른 봄날, 부산에 사는 손녀가 찾아왔을 때 밥이 싱거워진 철부지 아들이 손녀와 함께 텃밭에 강낭콩을 심었다. 언제 싹이 나오나 아침마다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더니 드디어 앙증스러운 새싹이 돋았다. 며칠 후 사진을 찍어 손녀에게 보냈더니 다행이라며 큰 소리로 환호를 보내왔다.

손녀는 말했지. 작년에 학교에서 콩을 심었는데 돌보지 못해 죽게 한 일이 일 년 내내 가슴에 남았는데 그 죄스러움을 할아버지네 텃밭에서 조금은 갚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손녀의 착한 마음에 깜짝 놀라 가슴이 몽클해졌는데 그 강낭콩을 아내가 수확하고 있다.

아이답지 않게 어른 입맛을 닮은 손녀는 나물이며 콩 종류를 좋아한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콩을 사주고 콩이 생기면 딸네 집이 우선이다. 아내가 수확하는 강낭콩이 그리운 어머니와 귀여운 손녀를 소환한다.

푹푹한 강낭콩이 실하게 영글었다. 하얀 쌀밥에 넣어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을까. 고소하면서도 싱겁지 않은 맛있는 밥이 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 밥이 싱겁게 된 고희의 아들이 강낭콩을 심은 이유다.

여름 장마를 여러 해 겪으며 어머니의 강낭콩이 아내의 강낭콩이 되었고 다시 손녀의 강낭콩이 되어 또 다른 여름을 맞고 있다.

밥이 싱겁게 된 철부지 아들은 아무리 밥이 싱겁더라도 밥에는 조금만 넣어 먹고서 심은 콩을 돌보지 못해 미안했다는 손녀에게 많이 보내줘야겠다.

이달의 손편지

화 내지 않을게요

황윤서 | 부산시 사하구 옥전로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초등학교 4학년 예쁜 여학생입니다. 제가 여성시대를 알게된건 사실 우리할머니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선 여성시대 왕팬이시거든요. 늘 방송도 들으시고 편지도 보내셔서 당정도 되셔서 상품도 받곤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것도 할머니와 함께 여행했던 너무 뜻깊었던 예길 여성시대에 보내고싶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부족해도 꼭꼭 제발 읽어주세요.

금요일 오후 학원에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께선 나와 단둘이 여행을 갈건데 일단 약속을 하자고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화를 자주내서 할머니께서 당황해하시곤 하세요. 앞으로 화를 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면 같이 여행을 가신다고 하셔서 전 이제 화내거 안겠다고 약속했구요. 기차타고 가는 여행이라고 필요한걸 챙기라고 하셨고

전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서 무엇부터 챙겨야할지 웃음만 나오고 아무생각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왔냐, 갔냐, 앉았냐, 섰냐 괜스레 물도 한모금 먹어보고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고 거울보고 히히 웃어보기도 하구 그러고 있다보니 할머니께서 여행 갈때 꼭 필요한것만 챙기라고 하시면서 갈아입을 옷, 섰크림, 욕산 이것저것 말씀해주셔서 제 머리속이 좀 정리가 되어라구요.

챙긴가방을 머리위에 두고 잠을 거려니 툭 잠이오길 않아서 뒤척뒤척거리다 여찌 여찌 잠깐 자고 보면 겨우 1시간이 지나고 또 억지로 잠들면 시간 새벽까지 몇번을 깬것 모른답니다.

지하철은 많이 타봤는데 기차는 처음 타보는거라서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구 드디어 아침이 되어 출발하자는 할머니 소리께 벌떡 일어나서 거의 빛에 속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순간 아빠도 같이준비를 하시기에 기차역까지만 태워주셔라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기차에서 자가용으로 교통수단이 바뀌었다.

사실 기차도 타보고 싶었지만 아빠도 함께 가신다니 더욱 좋았다

우리 아버랑 할머니랑 저 셋이서 땀뻘린 새벽길을 달려왔다.

달리다 보니 해가 뜨는 것도보고 어디엔 비가오 어딘해가 뜨고 날씨가

번덕스러웠다. 옛날엔 들고 돌아서 오래걸리던 시간이 터널때문에
 엄청 빨라졌다고 아버도 말씀하셨다. 우리가 가는목적지는 왕할머니
 댁이였다 왕할머님 생신이라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먼길을
 가신다고 할머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는 부산에서 충청북도
 단양이라는 곳을 가신다고 하신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간식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했다 약 4시간 정도이니 근처 마지막 휴게소에서
 왕할머님께 드릴 말랑말랑한 복숭아 한 상자를 할머니께서
 사셨다. 시골 풍경을 보는동안 목적지에 도착했다. 왕 할머님
 아들 손자분들 마니 와 계셨다. 몇진 오빠들도 마니 있었는데 난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 모두 우리석극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시골집 마당가에는 왕할머니께서 손수 키우신 고추나무엔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고 키가 큰 옥수수 나무는 엄마가 아기를 업고있는
 모습이었다 옥수수 수뭍이 그렇게 빨간건 처음 보았다. 할머님랑
 들이 시골길을 산책했다. 자두나무에 자두가 열려있고 꽃이 예쁜
 백일홍 배롱나무도 알려주셨다. 개울가에 징검다리도 건널 수 있었는데
 강맛비에 물속에 숨어 버렸다. 살짝 아쉬웠다. 사건도 많이
 겪었다. 왕할머니님 댁에 돌아오니 더많은 분들이 우릴 반겨 주셨다.

저녁엔 금수산 정산에 있는 토종담집으로 하신다면서 커다란 케익을 준비하시고 금수산으로 갔다. 가는 길이 너무 예뻐서. 약 20명도 되는 가족들이 모여 왕할머님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다. 준비해오신 선물도 전달되고 할머니께서도 기뻐하셨다. 맛있는 저녁도 먹고 가족끼리 노래면습장도 갔다. 노래를 잘부른다고 칭찬도 받았다.

그렇게 1박을 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아침에 우린 가족중 제일먼저 서둘러 떠났다.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셨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구요 휴게소에서 처음으로 반건조 오징어랑 아메리카노 커피두잔을 아빠와 할머님께 순수한 제용돈으로 사드렸다 너무 마음이 기뻐했다 여행을 다녀오면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리속을 스쳐간다 이렇게 추억이겠지요. 다음에도 또 찾아 가고 싶고 보고싶은 가족이 많아요. 모두들 너무나 따뜻한 분들이셨거든요. 제 글 어떠셨나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영어, 국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참마니 배웠습니다.

할머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도록 노력하려고요. ㅎㅎ



여성시대 사진방



[7089] 알프스 왕자라는 자두를 생산합니다.
이름만큼이나 달콤합니다.



[0406] 며칠 전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는데 대형
파라솔을 펼쳐 놓고 밭에서 뽑아온 마늘 정리하
고 계시더라고요.



[4009] 여기는 충주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쭉파 작업하는데 짬뽕이네요.



[6819] 둘째 임신한 딸을 위해서 새벽 3시부
터 반찬 만들어 딸 집에 가져다주고 출근하는
중입니다.



[1765] 사천 서포는 가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조생종 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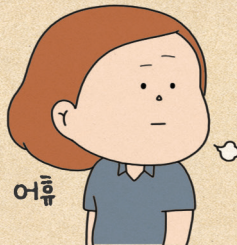
경기 부천시 여성시대 가족
김선미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민아 게임만 하지 말고
엄마가 닭백숙 해왔으니
데워 먹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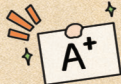
네~



어휴

방학을 맞아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는 작은아들을 보면
한숨이 푹 쉬어지다가도

지난 학기
 위풍당당하게 들이민 성적표를 생각하니
 화가 누그러진다.



그런 녀석이 얼마 전 여자친구가 생겼다.



바쁘다 바빠



첫 데이트 날 팬티 바람으로
 분주히 준비하고 나갔던 아이는
 저녁 10시가 넘어 기분 좋게 들어와서는
 주섬주섬 비닐봉지를 꺼냈다.

웬 옥수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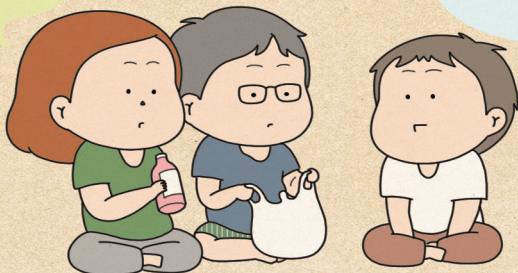


음~ 여자친구
 큰아버지가 강원도에 계신데
 올해 처음으로 딱 옥수수래.

또 다음 데이트엔
복숭아 맛 탄산 음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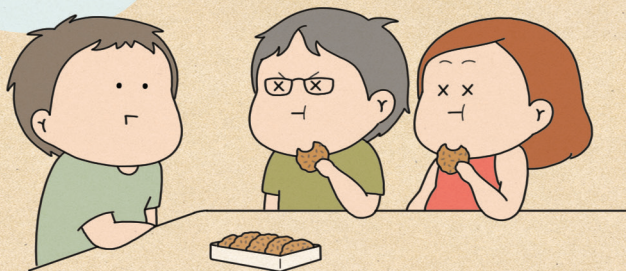
이게 뭐니?

새로 나온 음료수래~



또 다음 데이트엔
직접 구웠다는 쿠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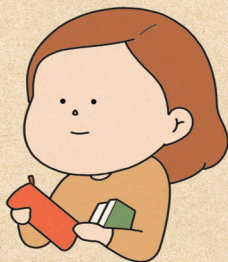
유기농으로 만들었대.



매번 데이트마다
특별한 선물을 하는 아이의 여자친구가 궁금하다.
특별하고 귀여운 아이임이 틀림없다.

어제는 서점에 갔다가
작은아이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

좋아하려나...



책 두 권과 빨간색 필통을 샀다.

카드라도 하나 쓰고 싶었지만
혹시나 부담스러울까 꼭 참고 아들에게 건넬니
입에 헤~ 벌어진단다.

여자친구
갖다줘~



엄마 고마워!
다녀올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아들의 청춘이
눈부시게 빛나서 부럽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가구 기업

IBK기업은행 석남동지점 거래고객

(주)로리에 이진상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노란 낙엽을 밟으며 선선한 가을바람에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이 계절, 고품격 인테리어로 고객의 취향을 완벽히 저격하는 착한 기업이 있다.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맞춤형 가구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로리에갤러리(대표 이진상)가 그 주인공이다.

(주)로리에는 ‘공간의 가치를 생각하는’ 프리미엄 가구 제조 업체로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직원의 약 50%가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진상 대표는 20년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품질, 고객의 취향과 건축 구조에 맞춘 디자

인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주로 건설사의 모델하우스 가구를 제작·공급하며 성장한 로리에는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가구 제조·유통업체인 한샘, 리바트의 협력업체로 가구를 제작·납품하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직접적인 판매망도 확충했다. 현재는 인천 본점을 비롯해 용인점, 대구점까지 총 3개의 로리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진상 대표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와 빠른 납기로 신뢰를 쌓았다. 건설사의 모델하우스에 공급하는 가구는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많은 편이다. 가구의 품질은 기본이고 정확한 납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데, 다른 업체와 차별성 있는 모습으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것이다. 덕분에 매출도 상승해 작년에는 1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매년 성장하고 있다. “로리로로 작업 요청이 많이 오는 이유는 바로 높은 품질과 빠른 납

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이 대표는 말한다.

로리에는 총 60여 명의 직원 중 30여 명의 직원이 청각장애인이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이진상 대표는 청각장애인은 귀가 조금 불편할 뿐 오히려 손의 감각이나 집중도는 비장애인보다 뛰어나다고 말한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이 대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



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똑같은 꿈을 꾸고 노력을 인정받는 가구 회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진상 대표가 그리는 로리에의 미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는 다양한 기부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선한 영향력도 만들어 간다. 해마다 신제품이 출시되면 앞서 출시된 제품은 재고도 쌓이게 된다.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제품들이지만 그렇다고 팔 수는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원순환의 여러 방법을 고심하다가 꼭 필요한 곳에

기부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여러 곳을 물색한 끝에 '경기도아동청소년그룹홈지원센터'라는 곳을 찾게 되었고 '평생을 살면서 가구 한번 바꾸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직원들이 공들여 만든 가구를 후원하면서 재고를 소진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사라졌다. 동시에 좋은 가구와 기업의 가치를 지키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공헌으로 이 대표를 비롯한 로리에 직원들의 마음 또한 기쁘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재단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로리에는 이어가고 있다.

IBK기업은행 석남동지점 김미화 지점장은 “로리에는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소외된 계층과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에 크게 이바지하는 가

구 업체로, 창업 때부터 IBK기업은행과 거래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로리에와 IBK기업은행의 인연을 전했다. 또한 지금처럼 “로리에와 기업은행이 함께 상생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응원했다.



IBK기업은행 석남동지점 김미화 지점장(왼쪽)과 ㈜로리에 이진상 대표

! (주)로리에 이진상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제공하라.
2.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품을 모색하라.
3. 언제나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라.

(주)로리에

대 표 이진상

전 화 032-584-0981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10

홈페이지 <https://www.laurie.co.kr/>



최고의 품질로 고객을 감동시킨다

IBK기업은행 군자역지점 거래고객

(주)SW이노베이션 채종대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SW이노베이션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으로
아웃도어 및 캐주얼 브랜드의 티셔츠를 생산한다.
높은 품질 보장과 시즌에 맞게 출시할 수 있도록 납기일을
단 한번도 어기지 않음으로써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있다.

SW이노베이션은 의류 브랜드 OEM 기업이다. 특히 아웃도어 및 캐주얼 브랜드의 티셔츠를 주로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각 브랜드에서 시장조사를 통해 디자인을 하면 SW이노베이션에서 샘플을 제작하고 품평하여 디벨롭을 진행한 후 최종 결정된 제품을 생산하고 브랜드를 붙여 납품한다. 베트남 자가 공장 과 중국-한국에 협력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채종대 대표는 국내의 한 의류 브

랜드에서 MD로 10여 년간 근무한 후 2000년에 SW이노베이션을 창업하였다. 디자인이 다양하고 소비성이 많아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 의류 중 티셔츠를 주력 아이템으로 선택하였다. 국내 동일 업종의 기업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SW이노베이션은 창업 후 24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도산하는 기업이 많은 업계에서 굴곡 없이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고객과 신뢰와 신의를 쌓아



은 덕분이다. 모든 기업이 어려웠던 코로나19 시절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 덕분이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모든 공인이 출퇴근도 하지 못한 채 공장에서 숙식하며 약속된 물량을 약속된 기한 내에 생산하여 납품했다.

“고객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품 기한은 물론 품질에 대한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지키고 있어요.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지체 없이 폐기하여 브랜드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런 노력 덕분에 저희와 한 번 거래한 고객

은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닌 고객과의 신뢰와 신의가 저희 SW이노베이션의 성장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SW이노베이션은 업계 다른 기업과 달리 원단을 직접 생산하고 베트남, 중국, 한국 등 생산지를 다양화하여 고객이 원하는 적가적소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

아울러 채종대 대표는 회사 성장의 이면에는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 때문에 성과급이나 근속 휴가 및 상여, 직원 자녀의 학자금까지 큰 기업 못지않게 직원



들의 복지에 신경 쓰고 있다. 덕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직원이 장기근속자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회사 사훈이 역지사지(易地思之)예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찬 머리, 더운 가슴, 밝은 눈이라는 초등학교 은사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사업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을 겸비하고, 옳

은 것을 보는 눈을 키워 앞으로 SWI 이노베이션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중대 대표는 옷을 만드는 일은 종합 예술이라고 말한다. 원단 생산부터 디자인, 재단, 봉제 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신경 쓰고 체크해야 할 것이 무척 많다. 생산 과정마다 변수도 많고 소비자들에게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보장은 물론 유행과 디자인에 대한 감각도 필요한 직업이



라는 자부심이 가득하다. 그는 이런 실력과 자부심으로 강소기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다짐한다.

IBK기업은행 군자역지점 백승남 지점장은 “SWI이노베이션은 창립 이후 IBK기업은행 군자역지점을 민

고 전속 거래를 해주신 충성도가 높은 우량기업으로 앞으로도 튼튼하고 든든한 명품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IBK기업은행이 큰 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SWI이노베이션 채종대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군자역지점 백승남 지점장

! (주)SWI이노베이션 채종대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쌓아라.
2.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솔루션을 찾아라.
3. 완성도 높은 제품을 기동성 있게 공급하라.

(주)SWI이노베이션

대 표 채종대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41길 10-1 SWI B/D

전 화 02-3437-1051

코너 속 편지

사랑 사랑 사랑

- 81 저는 그냥 동생인 거죠?
- 85 한 달 간의 기다림
- 89 지키지 못한 약속
- 97 대답 없는 대답의 의미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 104 소리꾼 딸을 위해
- 107 지친 하루



사랑 사랑 사랑

저는 그냥 동생인 거죠?

애청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스무 살 때의 일입니다.

저는 공부랑 그렇게 친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대학 입시 성적이 좋지 않았고 마침 재수 학원이 유행하던 시기라 부모님의 등쌀에 밀려 억지로 한 번 더 대입을 준비하게 되었죠. 저는 특히 수학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학원에서도 수학 시간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날도 강의실 뒤쪽에 앉아 ‘미분은 뭐고 또 적분은 뭔지~ 흰 건 중이요 검은 건 글자로구나~’ 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툭! 뒤에서 쪽지가 날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펼쳐보니 짤막한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 봐>

‘누구지? 누가 보낸 거지?’ 저는 그렇게 한 시간 내내 누가 쪽지를

보냈을지 궁금해하며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드디어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안녕? 너 여기 혼자 다니는 거지? 나도 혼자거든. 스물한 살!”

“아, 네 안녕하세요.”

우수에 젖은 얼굴에 덩치가 두툼한 분위기 미남이었어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고 저는 벌써 상대의 손을 잡고 대학 캠퍼스를 누비는 핑크빛 상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쪽지는 왜 보내신 거예요?”

“아~ 놀랐으면 미안해. 사실 나한테 네 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네가 동생이랑 너무 닮았거든.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서 쪽지 했어.”

그 오빠는 저를 유심히 지켜봐 왔다고 했어요. 제가 자기의 친동생을 똑 닮았다고 수학 시간에 멍때리는 모습까지 닮아서 호기심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해주는데 친하게 지내서 나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오빠는 이미 이름 있는 대학에 다니는 명문대생이었고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휴학계를 내고 한 번 더 입시에 도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붙어 다니면 제가 모르는 문제도 물어보고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았죠.

다음날부터 저희는 수업 시간에 같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이 좁아서 자리가 뻑뻑하면 제가 꼭 칠판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오빠의 옆자리를 맡아줬어요. 그 대가로 저는 자습 시간마다 공짜 수학 과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선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아직 대학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제가 입시 스트레스로 불안에 휩싸일 때면 항상 저를 토닥여 주며 따뜻한 말을 건네줬죠.

“대학이 전부는 아니야. 나 좀 봐. 나도 처음에 원하는 학교에 붙었을 때는 날아갈 듯이 좋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잘 안 맞아서 이렇게 나오게 됐잖아. 네가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생각해 봐.”

“정말? 고마워.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안심이 돼.”

“넌 방실방실 웃고 다니는 게 예뻐. 울지 말고 웃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좋겠어.”

마음이 쓰였는지 그 뒤로 더 열심히 수학을 알려주는 오빠 덕에 강의 진도도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쯤부터 저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오빠가 저를 너무나도 친동생 대하듯 편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져서 쉽게 마음을 고백할 순 없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습시다. 하늘은 어둡고 비 냄새도 나고 재수한다고 별로 즐겨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술이 고파지더라고요.

“오빠, 오늘은 일찍 수업 땡땡이치고 한잔하러 갈래? 우리 맨날 학원에서만 보잖아.”

“그래, 다음 교시 끝나고 나가자.”

저희는 먼저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빠는 김돈규의 ‘나만의 슬픔’을 불러주었고 저는 마이크를 잡은 오빠의 길고 예쁜 손을 보며 또 가슴 설레었죠. 노래방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호프집에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의 폭신한 소파, 눅눅한 식탁과 달달달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 모든 게 또렷하게 기억나요. 저는 생맥주 두 잔을 한 번에 들이킨 뒤 후하후하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 좋아하는 거, 오빠도 알지?”

오빠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차분하게 그리고 평소와 같은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인사했을 때 기억나? 나는 네가 정말 내 동생 같아.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어.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들으니 가슴이 옥신거렸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고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해주는 게 참 오빠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리고 보면 오빠가 제게 여지를 주거나 연애를 하자며 다가온 건 아니었죠. 저는 오빠가 밋기보다 제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헛갈리지 않게 생각을 말해준 게 참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어색해지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이 종이 접듯이 단번에 접히는 건 아니기에 짝사랑을 청산하느라 애를 먹긴 했지만 저희는 이전처럼 둘이 붙어 다니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드디어 입시 결과가 나오는 날. 저는 원하던 대학까지는 아니어도 첫 입시 때보다 좋은 학교에 붙었고 오빠는 목표한 학교와 학과의 합격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누구 한 명만 잘되지 않고 둘이 웃으며 학원을 나올 수 있어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에게 뽀뽀 문자가 왔어요.

<축하한다. 내 동생 같은 ○○아! 너의 앞날이 늘 순탄하길 바랄게.>

오빠는 그 이후로 제게 더는 연락하지도 제 연락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오빠니까 그런 선택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오빠의 행동 덕분에 제 마음을 끝내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고 또 좋은 인연을 만나 두 아이를 낳고 잘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시대에서 수학 교육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오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훈훈한 기억을 되살려 몇 자 적어봤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한 달 간의 기다림

김태식 | 경기도 광주시

부모님의 첫 만남 이야기를 듣고 두 분이 너무 귀여우셔서 제가 대신 사연을 남깁니다.

부모님은 무려 45년 전 소개팅으로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남동생 하나에 여동생 둘인 1남 3녀 장녀이셨고요. 외할아버지가 친척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단칸방에서 여섯 명의 가족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가족들에게 “네가 장녀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 시집을 잘 가야 동네에서도 좋게 소문이 나고 동생들도 줄줄이 결혼을 하지.” 이 얘기를 귀에 피가 나도록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본인에게 잘해주고 본인만 바라보는 지고지순한 사랑꾼을 만난다면 바로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누나를 4명이나 둔 1남 4녀의 막내아들이었어요. 넉넉한 집안의 늦둥이 아들이니 얼마나 어화둥둥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누



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건 물론이고 어릴 때부터 본인이 갖고 싶은 건 다 가지셨죠.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으셨대요.

비가 억수로 내리던 여름 날, 두 분은 소개팅 장소였던 다방에서 만나셨어요. 어머니는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벗고를 수십 차례 하다가 약속 장소에 무려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어머 이걸 어쩐다? 첫 만남인데 너무 늦어버렸네. 그냥 처음 입었던 옷 입고 나올 걸~”

하지만 시간을 되돌리기엔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고 우산을 썼지만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에 옷이 다 젖어서 상태가 정말 메롱이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약속 장소에 무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서 어머니가 늦은 시간까지 총 2시간을 수없이 기다리다가 물로 배만 채우고

계셨어요.

“길을 잘못 드셨나? 밖에 나가서 기다려볼까. 하필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릴 게 뭐람.”

어머니는 결국 한 시간을 꼭 채워 지각했고 다방에 들어서자마자 이 남자 저 남자 매의 눈으로 스캔하며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설마 저 남자인가?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 아니겠지? 아차, 일행이 있구나. 그럼, 저 사람인가?”

혼잣말을 하며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드디어 노란 손수건을 목에 찬 아버지를 보셨지요. 한눈에 봐도 잘생기고 키 큰 남자!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백마 탄 왕자 같잖아.” 미소를 숨길 수가 없었죠.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신 자리로 가서 비를 핑계 대며 사과를 전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바람에…”

“아니예요. 저도 방금 온 걸요. 오늘같이 비 내리는 날에 약속 잡은 제가 더 죄송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버지는 비에 젖었지만 밝그레한 얼굴로 허둥대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대요. 두 분은 서로 통성명을 하고 쌍화차 두 잔을 시켜 이야기를 나누다 근처 맛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밥을 두 그릇씩은 드시는데 그날은 긴장도 되고 웬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밥을 반 공기만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우리 조만간 또 봐요. 집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전화번호요? 저 원래 이런 건 잘 안 알려주는데 오늘 제가 약속에 늦었으니 알려드릴게요.”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 집에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그 남자 어때? 집안은? 형제는? 직업은?” 하며 어머니가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질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사람을 한 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더 만나봐야 알죠” 하며 내심 아버지의 연락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누나들에게 둘러싸여 어화둥둥 지나느라 무려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으니 다른 선 자리를 잡아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여보세요? 회사 일이 바빠서 연락이 너무 늦었네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요. 하나도 안 기다렸어요!”

“제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겠어요? 그때 뵈었던 다방에서 봐요.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아버지는 일에 파묻혀 뒤늦게 전화한 것에 대해 누나들에게 혼쫓이났는지 그날부터 어머니에게 엄청난 애정 공세를 퍼부으며 결국 연애를 시작하셨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두 번 세 번 만나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한다는 확신을 갖고 바로 결혼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연애 2주년 날 “나랑 결혼하자, 잘해줄게!” 고백하며 프리포즈했고 그렇게 결혼에 골인! 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아버지가 조금만 행동을 느리게 하시면 “그때처럼 또 한 달이나 걸릴 거냐~ 나를 더 기다리게 하지 말아라~” 하고 농담 섞인 잔소리를 하곤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늘 “미안해~ 사랑해~”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사실 누구보다 좋아하는 어머니. 두 분의 사랑 이야기 너무 귀엽죠!

사랑 사랑 사랑

지키지 못한 약속

애청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회사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시 스물여덟의 나이로 어느 직장인들이 그렇듯 특별한 일도 또 나쁜 일도 없는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창이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름을 들어보니 김진구! 제가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꽤 가깝게 지내던 남자 사람 친구와 이름이 같더라고요. 사는 게 바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겨 아쉬웠던 친구였는데 이름도 같고 나온 중학교도 같다고 하니 ‘정말 그 친구인가?’ 싶어 반가웠죠. 저는 퇴근 시간에 맞춰 그 친구가 있다는 부서로 달려갔고 입구 쪽에 앉아 있는 동그란 뒤통수를 보자마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너, OO 중학교 나온 친구 맞지? 야 오랜만이다.”

“아이, 깜짝이야! ○○이? 와~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잘 지냈어? 여기 다니는 거 알았으면 진작 연락할 걸 그랬네.”

“앞으로 자주 보면 되지 뭘.”

지루한 회사 생활에 마음을 편히 나눌 수 있는 동지가 생기다니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각자 부서에서 겪은 일을 토로하며 시원하게 회사 사람 뒷담화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 파트너가 되었죠.

하루는 그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는데 넌지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있냐? 맨날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는 거 보니까 없지? 솔로지?”

“놀리는 거야 뭐야? 그래, 나 애인 없다. 왜!”

“연애할 마음은 있고? 내가 진짜 존경하는 선배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사람이 진국이거든~”

친구의 말은 이랬습니다. 저보다 일곱 살 연상인 남자가 있는데 본인이랑 같은 대학교를 나온 선후배 사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회사에 대리로 있고 아주 성실하면서도 침착한 성격이라고 만나봐서 나쁠 거 없다더군요. 친구가 소개해 주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다 싶었던 저는 단번에 ‘오케이’를 외쳤습니다. 내 나이 스물여덟, 이제 퇴근하고 집이 아닌 데이트 장소로 달려갈 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날이 화창했던 유월, 친구가 소개해 준다는 그 남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친구야, 나 여기 식당 앞인데 진짜 셋이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너무 어색할 것 같아.”

“형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 파티팅~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면 전화해.”

소개팅 장소는 당시 유행하던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조금 일찍 도착해 먼저 들어가 보니 고급 찻잔이 걸려 있고 의자는 벨벳 가죽으로 되어있는 게 딱 봐도 음식이 비싸겠다 싶은 가게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상대를 기다렸고 순간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씨 맞으시죠? 일찍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분은 정말 어른 같았어요. 일곱 살 터울이라 그런지 모 회사의 대리님이라 그런지 신사 같은 분위기에 저는 압도되고 말았죠.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둥대자 그분은 능숙하게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손님, 밥으로 드릴까요 빵으로 드릴까요? 재떨이도 필요하시면 놓아드릴게요.”

“재떨이는 괜찮고요. 저는 빵으로 주세요. ○○ 씨는요?”

“저는 밥으로요. 감사합니다.”

그날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했던 건 그분의 매너가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이미 계산을 다 해놓으셨다고요? 언제요?”

“아까 잠깐 자리 비우셨을 때요. 집이 어디 쪽이라고 하셨죠? 제가 데려다드릴게요.”

월급이 적은 저를 배려해서 몰래 음식값을 계산해 놓고도 생색을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에 ‘이 남자다!’ 싶었습니다.

결국 집 앞에서 헤어지기 전까지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용기를 내어 말했죠.

“혹시 다음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는 매주 주말마다 서로의 거주지를 교대로 오가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오빠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오빠의 친구 분이 아기 돌잔치를 한다고해서 같이 가게 되었는데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찌나 겸손하고 친절하시든지 알면 알수록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모난 데 하나 없이 깔끔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사이가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오빠를 만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오빠는 저를 좋아한다거나 정식으로 만나보자는 말을 일절 하지 않았으니까요.

‘친구한테 오빠가 내 얘기 했냐고 물어봐 볼까? 아냐 아냐. 말을 흘릴 사람이 아니니까 어차피 들을 게 없을 것 같고 혹시 내가 별론가? 너무 어리고 별이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가?’

생각이 많아지고 점점 불안이 차오르던 12월의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아주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회사 근처 다방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일을 서둘러 마치고 쏠살같이 달려가니 오빠는 침울한 표정으로 하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한 기색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걱정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 씨가 다 듣고서 저를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저는 그거에 따를게요.”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면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할까 싶어 가슴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오빠는 천천히 말을 이어 나갔습니다.

“나는요 사 남매 중에 막내예요. 위로는 형님이 두 분 계시고요. 누님도 한 분 계셔요. 아버지는 의사였어요. 의사. 남들은 다 멋있다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우리를 배신하고 다른 살림을 차리러 떠나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니는 사 남매를 키우느라

안 해본 고생이 없을 정도였지요.”

“많이 힘들셨겠네요.”

“두 형님은 결혼 적령기가 지났는데도 결혼을 안 하시겠대요. 한이 맺힌 거지요. 그런데 나는 결혼이 하고 싶거든요. 대신 상대에게 아무 것도 숨겨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슬픈 과거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빠가 참 가여웠어요. 늘 듬직하고 신사 같았던 오빠에게 그런 사정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그게 어디 오빠의 잘못일까요. 저는 오빠의 두 손을 꼭 잡고 손등을 어루만져 주었고 오빠의 두 눈에선 눈물이 쉽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 씨를 만난 이후에는 많이 줄였지만 원래는 술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항상 술에 취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자꾸 아이처럼 울었고요. ○○ 씨 저를 선택해도 후회가 없을 거 같으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생각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저는 오빠가 좋았고 이렇게 자신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정직함이 참 오빠답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한 끝에 다음 데이트 약속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1988년 12월 31일 십야극장에서 만나자는 약속이었죠.

그날은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아침부터 시골에 사는 어머니한테서 이상한 전화가 왔었거든요.

“내가 대단한 거 바라니? 아빠 친구 아들인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단니까. 너 안 나가면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저 만나는 사람 있단니까요.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요.”

“본격적으로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반년이나 암말 없이 속 썩였으며? 내가 개랑 당장 만나지 말래? 중요한 자리니까 한 번만 나가라는

거잖아. 암튼 그렇게 알아.”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근무하시던 경찰 친구분의 아들이 제 또래인데 만나보니 사람이 참 괜찮더라며 아버지께서 제 동의도 없이 덜컥 선 자리를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라 고집도 세고 뒤에 한 번 꽃히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어머니가 합세해 들들 볶으니 저도 별수가 없었습니다. 복잡해진 마음으로 일단 오빠를 만나러 극장으로 향했죠.

“○○ 씨, 여기예요!”

그날은 정말 모든 게 이상했다니까요. 반년을 알고 지내도 우리는 늘 다정하게 나란히 걷거나 우산을 같이 쓰는 게 전부였는데 오빠는 그날 처음으로 쭈뼛거리며 등장한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안았고 저는 그와 동시에 엄마에게서 받은 전화를 숨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사실은요. 엄마가 자꾸 선을 보라고 하셔서요. 안 간다고 해도 막무가내예요. 우리 부모님이 하도 엄하셔서 일단 시골 가서 만나만 보고 올게요. 대충 시간 때우고 와서 재밌는 얘기로 들려줘도 될까요?”

오빠는 흔쾌히 그러라 하면서 웃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라는 듯이 아무 걱정 없다는 듯이 심야 영화를 보고 평소와 같이 우리 집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1989년 1월 1일, 저는 아주 급하게 시골로 내려가 아버지가 잡아둔 선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가기 싫은 자리였으니 준비도 세월아 네월아 결국 약속 시간을 한 시간이나 넘겨 다방에 도착하니 성질 급한 우리 어머니는 호랑이 같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지요.

그런데 세상에나 맞은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중학교 다닐

적에 2년 선배였던 제가 짝사랑했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분은 전교 회장을 해서 학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인사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급생 여자아이들은 학교 계단 입구에서 그 선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어머니께 여쭙보니 양가의 아버지끼리는 경찰 선후배 사이였고 오히려 저희가 같은 학교를 나왔는지는 서로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정말 기막힌 우연 아니 운명이었지요.

“알고 보니 같은 학교도 나왔고 이게 운명 아니면 뭐겠어요? 너무 좋다.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날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 짝사랑 선배에게 애프터 신청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당장 올해 결혼시키자며 우리들 의견은 묻지도 않고 좋아하시더군요.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일이 이렇게 이상하게 굴러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저는 그날부터 매일 밤 뒤척이며 두 사람을 두고 고민했어요.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선배, 부모님이 모두 당장 올해 결혼하라며 부추기는 이 선배를 만나야 하나? 아님 지금 반년을 사귀 저를 믿고 본인의 모든 걸 고백해 준 오빠에게 돌아가는 게 맞나? 마음이 어지럽고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다시 올라와 결국 오빠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그 짝사랑 선배가 사람이 좋고 마음에 든다며 얼른 다음 약속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부모님 때문에 못 살겠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볼멘소리를 했지만 사실 모든 건 부모님 탓이 아닌 제 선택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집주인 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에감대로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그 오빠였습니다.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시골 다녀와서 연락할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으니 보고 싶어서요. 잠깐만 얼굴 봐요. 나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순간 그 오빠 앞에 나서는 게 부끄럽고 망설여졌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우리 관계가 끝을 앞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 음… 오빠, 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나갈래요.”

그 말이 우리의 마지막 이별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매너도 없고 멋도 없는 마지막 문장이었죠.

지금 저는 그 첫사랑 선배와 결혼해서 35년째 결혼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한 제 마음은요. 신사 같았던 마지막까지 저를 배려해 줬던 그 일곱 살 연상의 오빠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철부지여서 그랬다고 하기엔 스물여덟도 많은 나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정말 어리고 철이 없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가끔 오빠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도 매너 좋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디서 잘 지내실까 궁금했는데 소식이 닿을 길이 없어 이렇게 사연으로만 그리워합니다. 슬픈 건 오빠의 얼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 기억이 흐려진 걸까요. 아니면 죄책감에 저도 모르게 기억을 지워간 걸까요. 오빠에게 무례하게 마지막을 고한 제가 많이 미칩니다.

오빠도 이제 60대 후반에 접어드셨겠네요. 안부를 알 수 없지만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대답 없는 대답의 의미

김대희 | 경기도 부천시

30년 전의 일입니다. 15살 때 중학교 같은 반이었던 절친을 따라 열 떨결에 교회 수련회에 가게 되었어요. 숙소에 도착하니 어림잡아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청소하고 있었고 저는 인생 처음으로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조금 앞섰습니다.

“다들 나를 반겨주실까? 너, 나 두고 혼자 어디 가면 안 돼. 나 여기서 아는 사람이 진짜 너밖에 없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지고 너 챙길게. 그리고 다들 좋은 분들이니까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은 몰랐는데 이분들 이름 외우다가 1박 2일 다 가겠다.”

친구 옆에 딱 붙어서 이리저리 눈동자만 굴리는데 어느덧 청소 시

간은 끝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련회 시작해 볼까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자 여섯 명이 단상 위로 올라와서 누구는 기타를 들고 누구는 마이크 앞에 서고 누구는 피아노 앞에 앉더라고요. 모든 광경이 신기했지만 특히 기타를 맨 두 남학생 사이에서 조용히 마이크를 드는 한 여학생에게 눈길이 갔어요.

“아아~ 마이크 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능숙하게 음향을 확인하는 모습이 꼭 재야의 무림 고수 같았달까요. 피아노와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가 시작되자 저는 단번에 그녀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처럼 맑았고 눈은 별처럼 빛났어요. 노래 가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만 슬로우 모션으로 제 눈에 들어왔죠.

“아~ 노래 부르는 저분 이름이 뭐야? 나이는? 우리랑 동갑인가? 나 저분이랑 친해지고 싶어.”

“아~ 지선이 말하는 거지? 우리랑 동갑인데 왜 마음에 드냐? 우리 교회에서 인기 제일 많은 앤데 걱정하지 마. 나랑 친하니까 내가 소개해 줄게.”

비록 저는 까만 얼굴에 숯기도 없는 숙맥 중의 숙맥이었지만 든든한 친구의 말에 용기가 조금 났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까워질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저녁 시간에 다 같이 밥을 푸고 자리를 잡는데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우다다 걸어가더니 지선이 바로 맞은편에 저를 앉히는 겁니다.

“지선아~ 애는 나랑 같은 반 친구인데 이번에 나 따라서 여기 놀러 왔

거든. 동갑이니까 둘이 인사해.”

지선이는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고 저는 그 깊은 눈빛에 순간 얼어붙고 말았어요.

“어... 아... 안녕~ 나는 대희라고 해.”

“안녕! 나는 장지선이라고 해.”

말을 더 이어 나가 보려는데 상황이 여의찮았습니다. 저를 지선이 맞은편에 덜렁 두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 친구 녀석 때문에 어색한 정적만 흘렀거든요. 지선이기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같았어요. 차라리 친구가 있어 줬으면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의욕이 과했던 걸까요. 어쨌든 저와 지선의 공식적인 첫 접촉은 뜻뜻미지근한 밥맛처럼 아주 허무하고 짧게 마무리되었죠.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괜한 아쉬움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재미없었어? 아님 피곤해서 그래? 너 설마 지선이 때문은 아니지?”

“꼭 지선이 때문은 아니고. 이게 뭐야~ 밥 먹을 때 말고는 새로운 사람들이랑 얘기해볼 시간도 없고. 다들 밥도 후다닥 먹고 예배 준비한다고 나가버리고. 아주 정신이 없잖아.”

“에~ 지선이 때문에 맞네. 아쉬우면 매주 교회 와서 말 걸어보면 되지 뭐 그러냐? 다음 주 일요일에 와봐.”

저는 그렇게 친구의 전도 스킬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으니까요. 교회에서는 확실히 수련회보다 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제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려고 하면 지선이는 꼭 그때마다 찬양팀을 찾는 목사님과 어른들의 호출에 이리저리 불러 갔고 저는 멋

쩍게 머리를 긁으며 성경책만 읽어댔죠.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인기가 많은 지선이를 바라보며 애태운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갔고 저는 커다란 결심을 했습니다. 말재주가 없으니 대신 편지를 쓰겠다는 결심이에요. 토요일 저녁 저는 미리 사두었던 노란 편지를 꺼내 한 자 한 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지선이에게. 지선아, 안녕? 나 대희야. 항상 길게 얘기 나눠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참 좋다.>

다 쓴 편지는 잘 접어서 봉투에 넣어줬으니 이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안방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을 가져오는 일이었죠. 저는 까치발을 들고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마지막 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짝 빛나고 있는 어머니의 금반지를 짹싸게 손에 넣고선 서랍을 다시 넣어 두려는데!

“으음~ 어허이~ 부장님, 그건 말입니다. 으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대로 얼음 상태가 된 채로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에서 지잉~ 하고 울리는 전기 소리를 10분은 들었을까요. 아버지의 잠꼬대가 완전히 멈추고 코골이가 다시 울리면서 새벽 협주곡이 완성될 때쯤 저는 마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서랍을 잘 넣어두고 얼른 제 방으로 돌아와 지선이에게 줄 편지봉투에 반지를 넣어 완벽하게 봉쇄했죠.

저는 다음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뜯눈으로 밤을 새웠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별떡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깔끔한 차림으로 교회에 가야 했거든요. 교회는 평소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지선이



는 역시나 제일 앞자리에서 악보를 펼치고는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마침 제 친구 녀석도 아직 보이지 않고 항상 지선이 옆에서 기타를 들고 거들먹대던 두 형들도 자리를 비웠으니 지금이 기회다 싶었습니다.

“지선아, 바빠? 나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응? 뭔데?”

“별 건 아니고. 그냥 작은 선물인데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자, 받아~”

지선이는 봉투를 받자마자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서 봉투를 만지작거리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내가 정말 가져도 되는 거야? 마음만 받아도 되는데…”

“아니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꼭 받아줘. 내 소원이야. 그럼 가려는 걸로 알 테니까 얼른 마저 노래 연습해.”

더 있으면 지선이가 봉투를 돌려줄 것 같아 저는 얼른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갔고 ‘지선이가 지금 편지를 읽고 있을까? 뭐라고 말하려나? 혹시 오늘 다 끝나고 잠깐 얘기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상상일 뿐 지선이는 그날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다음 주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저는 혹시 지선이가 반지를 보고 너무 놀라 제 편지를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언젠가부터 그래도 인사 정도는 받아주었던 그녀가 저 멀리서부터 제 눈을 피하며 옆을 지나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건 정말 확실한 거절이었습니다. 지선이가 저를 피하는 게 느껴지던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주말마다 집에만 박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주 출석하던 제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니 걱정됐는지 교회에 나가지 않은 지 2주 쯤 되는 날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왜 그러는데.”

“진짜 비밀이다. 나 사실 지선이한테 고백했다가 완전 까였어. 아니 말로 까인 것도 아니야. 그냥 눈빛으로 분위기로 완전 거절당했다고!”

“뭘? 언제 고백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고백했는데?”

“내가 엄마 반지도 훔쳐서 편지랑 같이 전해줬는데 아무 말이 없어. 난 이제 거기 절대 못 가, 아니 안 가.”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붉으락푸르락 잔뜩 화가 난 얼굴을 하신 어머니가 성큼성큼 걸어 나오셨어요.

“너 이 자식! 너였구나? 어쩐지 내가 그걸 끼고 샤워를 한 적이 없는데! 어디 수챗구멍에 빠졌나 했더니만. 너 이리 와. 그걸 누구한테 줘? 지선이?”

“여보세요? 야, 나 일단 전화 끊을게.”

“내가 반지 봤냐고 했을 때 너 뒤라 했어. 못 봤다고 건든 적도 없다고 했어, 안 했어? 애가 거짓말만 늘어서. 너 이리 안 와?”

저는 그날 어머니에게 눈물 콧물 속 빠지게 혼이 났습니다. 퇴근하고 오신 아버지에게도 한 번 더 혼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동생에게도 놀림을 당했죠.

‘내가 왜 그랬지. 뒤에 흘렸었나보다’ 생각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짹 짹 밀었고 당장 오늘 교회에 가서 그 지선이에게 반지를 받아오라는 어머니를 말리느라 애를 먹었어요. 고백에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것도 부끄럽고 서러운데 이미 준 반지를 다시 내놓으라고는 도저히 말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동안 부모님으로부터 깨진 신뢰를 회복하느라 지선이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를 빼아픈 첫사랑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지선이는 고등학교 졸업한 뒤 약 2년 후에 일찍 결혼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친구들이 모두 3만 원씩 부조할 때 혼자서 10만 원을 냈습니다. 그렇게 혼이 나고 후회를 해도 다 퍼주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였나 봅니다. 저도 참 바보 같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소리꾼 딸을 위해

최병하 | 울산광역시 중구

무척 더웠던 2004년 7월 31일 새벽, 열 달을 꽉 못 채우고 8개월 만에 딸아이는 저희에게 왔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엄마인 제가 위급해서 더는 뱃속에 둘 수 없어 응급수술로 느닷없이 세상으로 나왔더랬죠.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딸을 덩그러니 남겨두고 저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처음 딸을 안아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잘 먹고 잘 놀던지 금방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외할머니랑 이모가 토실토실 잘 키웠답니다.

어찌나 푹푹푹푹한 지 15개월 정도쯤 됐을 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18개월에 한글을 다 읽는다고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믿을 수 없다고 아기 수첩에 적어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 자는 모습만 봤는데 어떻게 혼자 한글을 뗐다는 건지 믿기지 않았죠. 근데 정말 아기를 업고 나가면 참새 조둥이만한 입으로 거리의 간판들을 재잘재잘 읽더라고요.



기저귀보다 한글을 먼저 떤 딸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책을 더 빨리 읽었고 좋아했습니다.

다섯 살 무렵 고전 동화 전집을 읽다가 홍보가, 춘향가, 수궁가 이런 걸 알게 되더니 느닷없이 판소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처음엔 그냥 체험 삼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배웠는데 이번에도 춘향가 사랑가 대목을 다 외워서 무대에서 공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판소리가 재미있다고 서울에 있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해서 고등학교부터 서울 유학 생활하고 그 어렵다는 대학도 전통연희 학부가 가장 유명한 학교에 합격해서 차세대 명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딸아이는 판소리 시작 후 한 번도 가족들과 생일잔치를 못 봤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여름·겨울방학은 늘 산에서

합숙이거든요. 소리꾼들은 방학 때마다 산속에서 합숙하면서 소리 훈련을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국 명산, 사찰 가서 먹고 자고 소리 공부만 한답니다. 그런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어렵다는 흥보가 완창을 두 시간 만에 성공하여 고등학교 때 국악원 단독 무대까지 해낸 거겠죠.

이번 여름방학에도 역시나 딸은 쉬지 못하고 9월 학교 공연 준비로 매일 아침 나가서 밤늦게까지 연습합니다. 자기 생일 따위는 기억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열하게 소리꾼으로 살아가는 스물한 살 예쁜 제 딸에게 생일 밥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차려주고 싶어요. 딸 몰래 새벽에 가서 연습하러 가기 전에 먹고 힘내라고 든든한 생일상 전해주고 싶습니다.



양희은이 차려드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저는 이정은 명창의 어머니 최병하 님께 이 음식을 권하고 싶어요. 닭다리 간장 볶음.

1. 닭다리를 사서 껍질을 다 벗긴 후 기름에 노릇노릇하니 앞뒤로 지진다.
2. 감자, 홍당무, 양파 큼직하게 썰어놓는다.
3. 우묵한 냄비에 간장, 청주물 분량 잡고 설탕 약간에 마늘, 후추 넣고 끓인다.
4. 닭다리부터 넣고 한소끔 끓으면 큼직하게 썬 채소 등을 넣고 익힌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지친 하루

권순화 | 전남 광양시

저는 40대 후반의 중년입니다. 하루에 단시간 일을 3개 하고 있어요. 집에서 아침 7시 10분에 나갑니다. 첫 번째 일의 시작은 7시 30분. 어느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몇 개의 사무실과 회의실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화장실, 욕실, 숙소 청소하고 직원들 빨래 돌리고 개키고 그러다 보면 2시간 반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일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서 힘들습니다. 손에 면장갑과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서 땀을 닦기도 힘들거든요. 마스크도 하고 있고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 데다가 특히 얼굴에 땀이 많아요. 비가 올 때는 우산까지 들고 이동하느라 불편했지요. 밀대와 걸레를 넣은 수레를 끌고 다니거든요.

아침 10시엔 퇴근해서 집에 와 잠깐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밥을 먹습니다. 움직임이 많다 보니 배가 금방 꺼져서 뭐라도 자꾸 먹어야 합니다. 아니면 배가 너무 고파요.

두 번째 일터는 11시부터 시작하는 3시간짜리 요양보호사 일입니다. 지금은 5등급 치매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있는데 신체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등급이라 주로 인지 향상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고 간간이 집안일과 할머니 목욕도 챙겨드려요. 혼자 용변 보는 일도 쉽지 않은 분들이라 배설물이 묻은 빨래를 하는 일도 다반사. 그렇게 3시간 일을 마치고 바로 다음 일터로 갑니다.

세 번째 일은 초등학교 아이들 돌봄이에요. 하루 4시간 시간제 교사로 일하는데 다세대 아파트단지에 어린이집처럼 지정된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초등학교 1,2학년이 많고 아이들 방과 후 간식과 프로그램을 챙기는 게 일입니다.

근데 얼마 전엔 한 아이가 변기 밖에 설사를 했더라고. 갑자기 별레가 나와서 놀라서 그랬다며 말을 얼버무리고 우는데 솔직히 제가 울고 싶었습니다. 전담 선생님 휴무 날이라 안 그래도 더 바쁜 날이었는데 그렇다고 누구를 시키겠어요. 누가 해도 해야 할 일 그냥 제가 해야죠. 다른 아이들이 보면 안 되니까 문을 꼭 닫고 변기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마스크도 없고 난감했습니다.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고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아이들은 소란스럽고 아마 밖에 계셨던 시니어 선생님과 파견 나오신 미술 선생님도 힘드셨을 겁니다.

청소를 끝내고 나와 있었던 일을 전담 선생님께 전화로 알렸어요. 아이 엄마가 아이 옷 버린 걸 보고 놀라면 안 되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전담 선생님이 아이 엄마에게 잘 전했다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아이 어머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제게 '수고하셨다 고맙다' 말 한마디가 없어서 좀 서운했네요. 뭐 공치사 듣자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며 제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다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저도 먹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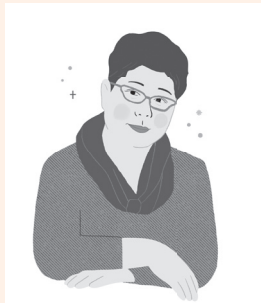
양희은이 차려드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

저는 이분께 기운내시라고 돼지갈비찜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1. 돼지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뺀 후, 냄비에 넣어 한 번 끓여주기.
2. 그다음에 찬물에 씻어 고기를 준비해 둔다.
3. 진간장, 요리술, 설탕, 간 마늘, 생강즙, 대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4. 준비해 둔 돼지갈비에 양념장을 부어 끓이다가 국물이 줄어들면 수시로 뒤집어준다.
5. 당근, 양파, 감자, 버섯을 넣어 15분간 더 끓이다가 풋고추, 파 넣고 뜸 들이면 완성.
6. 여기에 오이고추에 막장을 찍어서 물 말은 밥과 같이 먹으면 기운이 불끈! 열무김치도 추천합니다.

이별은 늘 어려워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내가 들은 8월의 휴가 뒷얘기 중에 최고였던 게 고향 마을로 내려가 친척들과 6촌 형제까지 모여 푸짐한 음식 해먹으며 늘어지게 쉬었다는 얘기가.

어린 날의 그림일기를 보자. 수박밭 한가운데 원두막 등등 시골 할머니댁에 다녀온 일기가 제일 부러웠다. 우리 집은 외가가 서울이고 친가 쪽은 다 이북이어서 시골집으로 놀러갔다는 친구들이 선망의 대상이었다.

말복 지나고도 더위가 가시질 않아 수영장 안에서도 땀이 뚝뚝 떨어졌다. 그나마 가장 시원한 곳인데... 올해는 열대야 기록도 최장이었고 더위가 징그러운 여름이었다. 그래도 어김없이 절기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기운을 느껴 다행이다.

지금 우리 집은 18살짜리 노견과의 작별을 준비 중이다. 1987년 결혼하고 계속 암수 두 마리의 동종 강아지들을 들어서 첫 번째, 펴그중(미미와 보보)은 14살, 16살에 차례로 떠났는데 노령견이 통증에 시달리는 걸 더 이상 못 보고 잠재우



듯이 보냈다. 무슨 주사를 놓고 진통제를 맞춰도 더 살아봤자 3주라는데, 통증을 견디는 모습을 못 보겠어서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 욕심인 것 같아 그렇게 보냈다.

더 이상은 안 기르겠다는 결심을 하고 3년을 버텼는데 그동안 우리 집안 분위기는 웃음도 없고 활기도 없이 정체되었다. 그사이 나는 MBC-TV ‘행복한 수다’를 찍느라 금요일 오후마다 작은 트렁크를 달달 끌고 가까운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등지로 향하며 무거운 집안 분위기를 피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양희경이가 갈색 푸들 두 마리를 구해왔고, 퍼그와 성정이 완전 판판이라 명랑하고 출썩대는 애들에게 적응하는데 꽤 오래 걸렸다. 성향이 완전 다른 퍼그와 푸들! 그러나 웬걸? 애네들 오자마자 우리 집은 다시금 명랑 가족이 되었고, 떠난 애들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미미와 보보라 불렀다. 그 아이들과도 18년 세월이 간다. 보보는 간암으로 4년 전에 떠났고, 혼자 남은 미미는 늘 하염없이 현관 앞에 엎드린 채 병원에 간 보보를 기다렸다. 그러다 어느 날 산책길에 나를 끌고 내달려 가기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뭐지?’ 하고 따

라가 보니, 우리 보보 털색과 똑같은 푸들이 산책 중이었다. 난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더니 내게로 왔다. 산책길에서도 늘 보보가 소변 보던 공원 경계석을 빠짐없이 냄새 맡고 다녔다. 보보가 병원에 가서 돌아오질 않았더니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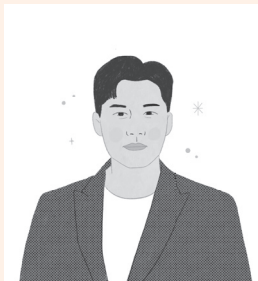
요즘 미미는 아침 10시에 입원해서 오후 7시에 퇴원을 한다. 집을 떠나 수액을 맞고 있으니 온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집에 와서도 물만 마신다. 도통 입을 다시질 않는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미미를 보며 “미미야! 내가 먼저 가면 네가 더 살다 오고, 네가 먼저 가면 나도 잠시 후에 따라갈게~” 그러시더니.

올해 1월초 엄마 가시고 미미마저 떠나면 혼자 남은 초코는 또 어찌나? 초코도 외로워 할 테니 한 마리 입양할 생각을 한다. 태어나 두 달 후 정도 때부터 평생을 함께한 미미와 보보처럼 누가 먼저 떠나면 남아있는 한쪽은 참 쓸쓸하기 그지없다.

곧 추석이다. 심기일전 해야지. 떠나보내고 또 살아야지. 점점 이별이 익숙해지려나? 아니다. 이별은 참!!! 힘들다.

**헬스장**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4월에 망막박리 수술을 받고 넉 달이 지나서야 정밀검사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일상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술 후유증은 눈이 아닌 신체 다른 부위로 찾아왔다. 한 달 이상을 엎드린 채 지내며 과격한 운동을 할 수 없다는 핑계로 안정을 제대로 취했다. 그랬더니 덕지덕지 붙어버린 뱃살이 바로 그 후유증이다. 물론 수술 전에도 어느 정도는 뱃살이 있었지만 숨길 수는 있었는데 이제는 감출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등록하게 된 동네 헬스장.

나에게 헬스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주차장의 유무이다. 물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주차장이 있어야 밖에서 일을 보고 난 후 집이 아닌 헬스장으로 차를 타고 바로 갈 수 있다. 심리적으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심장 사이 그리고 집과 헬스장 사이라고 믿고 있다. 그만큼 맘먹고 운동하러 가기가 참 멀게 느껴지는 곳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스 트레이너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헬스장이 처음일 땐 트레이너와 함께했었다. 정확한 자세를 잡아

주는 건 참으로 중요하지만 내가 힘들 때 “자 회원님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이 소리가 너무도 괴로웠다.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난 올림픽에 나갈 국가대표가 되려는 게 아니라고. 혼자 역기를 들며 힘이 들면 ‘한 번만 더’ 보단 ‘여기서 그만’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또 운동을 하고 싶단 생각이 든다.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이란 위안은 덤이다.

그렇게 최적의 장소를 찾았고 등록을 마쳤다. 역시나 혼자서 운동이다. 헬스장에 유독 젊은이들이 눈에 많이 띈다. 어쩔 그리 다들 떡벌어진 어깨와 호박고구마 같은 이두와 삼두를 갑옷처럼 두르고 있는지. 내 어깨와 팔이 더욱더 초라해 보인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뱃살뿐. 흘깃흘깃 젊은이들의 근육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대견하고 기특하던 생각을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직 아버지뻘은 아니잖아 일중야!’ 그래도 친구끼리 와서 서로 도와가며 운동하는 청춘들이 건강해서 보기 좋다.

6월 중순에 헬스장을 등록한 이후 이 글을 쓰는 8월 중순까지 딱 두 달이 지났다. 처음 마음먹은 대로 힘들 때마다 ‘여기서 그만’을 속으로 외쳤고, 운동 후에 만져지던 근육은 자고 나면 사라졌다. 그럼에도 몸무게는 2킬로그램 감량했으니 절반의 성공이라 자부한다. 이렇게 난 지치지 않고 지금처럼 헬스장으로 향할 것이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으로!

참고로 나랑 키가 비슷한 변우석 배우는 나보다 10킬로그램이 덜 나간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기업은행의 가치성장 프로젝트

IBK UP TOGETHER

아티스트 발굴에서 스포츠 지원까지

IBK기업은행은

아직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가능성의
제1호 팬이 되어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이름이 빛나는 그날을 위해

IBK기업은행의
**BOOM
UP**

너의 가능성
이제, 빛날 일만 남아 있어

신진작가 창작 및 전시지원
[IBK 아트스테이션]

발달장애 작가 육성 프로젝트
[IBK 드림윙즈]

사격, 여자배구, 태권도, 레슬링, 역도 등
[대한민국 스포츠발전 후원]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기업은행의 가치성장 프로젝트

IBK UP TOGETHER

IBK기업은행이
곁에서 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디자인지원 사업
[IBK 희망디자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치료비 지원]

IBK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